

2017년 8월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행복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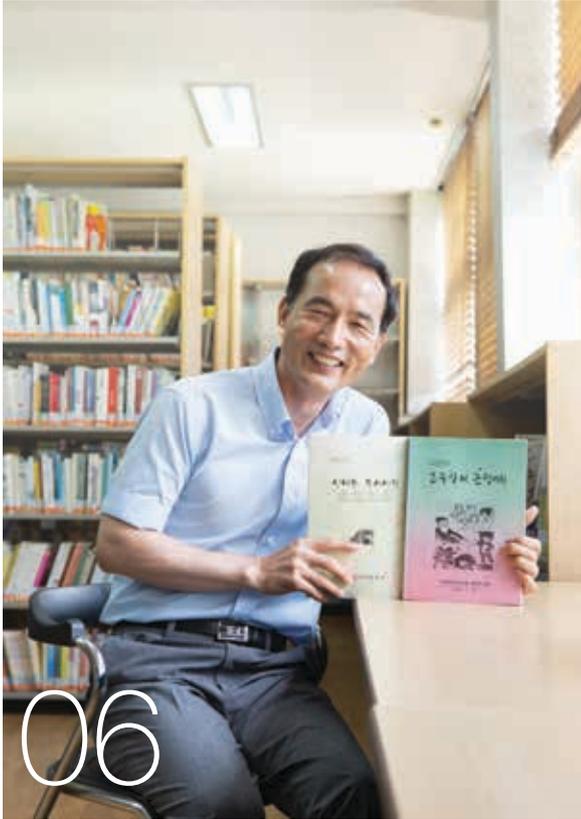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이 진화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교육사다리 소통과 협력으로 만듭니다”

‘감정’을 배우다





CONTENTS

VOL. 421 AUGUST 2017

현장 이야기

꿈이 영그는 현장 농어촌 아이들 위해 대학 문 활짝 연다	02
삶과 교육 강철오 밀양 밀성중학교 교사	06
이런 수업 어때요 I 나혜정 교사의 국어과 학생 중심 수업	10
이런 수업 어때요 II 김양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14
아하! 창의체험 충북 청주 오창고등학교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	18
화제의 교사 한초롱 교사의 초롱초롱 동요학교	22
학교가 즐겁다 방학을 끝내고 서로 안부인사 묻기	24

정책 이야기

초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26
기획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이 진화한다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집단 융합연구'	32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키운다	3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미래성장 동력으로	36
우수연구인력 키우는 BK21 플러스 사업 수기	38
정책N전망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_ 교육 분야	40
정책 특(Talk) 미래 교육 플랫폼, K-MOOC	42
정책카툰 한국 대학생, WEST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다	44

정보 이야기

교육논단 '감정'을 배우다

마음의 틀을 바꾸는 감정교육 46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교실 속 실천 48

시도교육청 플러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50
 대구/부산/경남/대전/인천/충남/전남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54
 영국에서의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학급경영노트 56
 칭찬 대신 격려로 시작하는 2학기 학급운영

아이의 다락방 58
 생애 첫 노동 경험, 청소년 '알바'

학교 밖 학교 60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농촌체험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62

명예기자 리포트 63
 네덜란드, 여름마다 찾아오는 저녁 도보 행진 외

진로나침반 68
 의약품인허가전문가

대학길잡이 70
 대학 수시전형 준비노하우①

자녀교육 Q&A 72
 우리 아이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上)

교양 이야기

이야기 인문학 74
 8월 15일 광복의 그 날

생각나눔 76
 우리학교 우리반 소통창구 SNS 활용 노하우

뉴스브리핑 78
 교육부,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 외

행복게시판 80
 구독신청 & 이벤트



COVER STORY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칼리지 주니어자유캠프'는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대학 연계 자유학기 진로탐색캠프이다. 경기도 소재 군남중학교와 원삼중학교 학생들은 경희대 재학생 멘토와 함께 1박 2일간의 꿈 찾아 가는 여정을 함께 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수대학 현장_ 경희대·서강대·카이스트

농어촌 아이들 위해 대학 문 활짝 연다



서강대 진로탐색캠프에 참여한 복현중 학생들. 3D프린터의 작동원리에 대해 배우고 있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해 대학 문을 활짝 열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농어촌-대학 연계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캠프를 운영하고, 교육소외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국 상위 13개 대학 중 한 곳을 찾아가 1박 2일간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학 특성을 살려 진로탐색을 돕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다.

“자, 각자의 꿈을 다 표현했나요? 그럼 이제 하나의 가면에 여러분의 꿈을 조화롭게 붙여서 패션쇼를 준비해주세요.”

학생들은 수학선생님, 축구선수, 트와이스 매니저 등 저마다의 미래 직업을 도화지, 우드블럭, 노끈, 사인펜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해서 가면에 붙인다. 각자의 꿈을 형상화한 작품을 하나의 가면에 붙이며 미래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경희대 LCD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Humanitas), 인간가치와 세계 탐색

지난 7월 11일 경기도 소재 군남중학교와 원삼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모였다. 미래 직업인의 모습을 한 로봇가면 창작, 백남준의 로봇작품에 관한 동영상 관람, 틀을 깨는 나의 모습을 담은 진로트리아트로 ‘춤추는 짝퉁로봇’을 만드는 등 1박 2일간의 진로탐색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칼리지 주니어자유캠프’는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도서벽지)-대학 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소외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국 상위 13개 대학 중 한 곳을 찾아가 1박 2일간의 진로탐색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인간의 가치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중핵(Core)교과를 접목시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인간의 가치탐색’ 이튿날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로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이 같은 주제를 선택한 데에는 나 자신과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죠.”

김은혜 캠프운영 담당자는 하나의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융·복합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것을 경희대

진로탐색캠프의 특징으로 꼽는다.

이어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현재의 나, 흥미와 직업으로 본 나의 인생곡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궁금증이 생긴 것들은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한다.

“대학생 선배들이 자신들이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문제나 고민, 초·중·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팁(Tip)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피드백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군남중학교 최기영 교사는 대학생 멘토링 시간을 가장 유익했던 시간으로 꼽는다.

캠프에 참여한 원삼중학교 1학년 이정욱 학생 역시 대학생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정욱 학생은 “꿈이 아나운서인데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 많은 것을 배워가는 기분”이라며 대학생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은혜 캠프운영 담당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내년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면서 더 많은 실질적인 효과를 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3D 디스플레이 체험



학과별 프레젠테이션과 전공별 심층 멘토링

대구 복현중학교 학생들이 서강대학교 연구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반듯한 자세로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이 대학생과 견주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강대학교 진로탐색캠프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공학 체험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7월 12, 13 양일간 진행된 캠프에서는 화학과와 생명과학과 수업에 복현중학교 학생이 20명씩, 두 개의 조로 나눠 참여했다. 화학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 화학과에서 배우는 것, 대학졸업 후 진로방향 등을 주제로 한 눈높이 교육이 진행됐다. 실험실 가운을 입은 대학생 멘토가 실제 화학실험을 보여주고, 신관우 교수가 중학생들과 눈을 마주보며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생명과학과 주봉건 교수 지도하에 3D 프린터의 작동원리에 대한 강의를 한창이다. 간단한 주요 개념정립 후 바로 실습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한 여름의 무더위도 잊을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뜨겁다.

복현중학교 2학년 부장 김은미 교사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특별한 경험인데 학생들이 실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진행된 진로별 멘토링 시간에는 영문학, 국문학, 경제학, 전자공학 4개 학과에서 전공별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했다.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이 10명씩 모둠으로 4개 조로 나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전공별 학과 소개 및 멘토링에 참여했다. 각



서강대 주봉건 교수 지도로 진행된 3D 프린터 강의

학과당 6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후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 역시 인상에 남는 시간으로 꼽힌 이유다.

“꿈이 펀드매니저라서 경제학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캠퍼스도 구경하면서 대학진학의 방향성을 찾은 것 같아요.”

2학년 김현호 학생은 1박 2일간의 캠프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며 아쉬움까지 내비쳤다.

서강대학교 진로탐색캠프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이다희 입학사정관은 “지난해에는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올해는 인문학과 및 심리학과와도 연계해 균형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준비한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에 대해 서강대 대학 강의를 듣는 복현중 학생들

로봇팔·3D 세상 만들기 등 이공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제주도 소재 한림여자중학교 학생 75명은 7월 12~14일까지 2박 3일간 카이스트를 찾아 진로체험캠프에 참여했다. 타 대학과 차별화된 카이스트 진로탐색캠프의 특징은 과학영재교육 연구원 소속의 진로및캠프교육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특성은 물론 과학영재교육 연구원의 커리큘럼까지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와 교수 초청강의를 필두로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연구소 탐방, 영재고·과학고·일반고 출신으로 구성된 카이스트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3D 펜을 이용해 입체형상을 만드는 ‘3D 세상만들기’와 ‘로봇팔 만들기’ 등이 진행되는 융합 과학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자신의 흥미·적성 등을 주제로 진로 로드맵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진로및캠프교육팀 류지영 교수는 “대부분 함께 소통하면서 직접 만들어가는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 학생들의 참여

카이스트 재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카이스트 진로탐색캠프인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연구소 탐방

도 및 흥미가 높다.”면서 카이스트 인근에 정부출연 과학연구소들이 많아서 대학교와 산업현장 견학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 역시 카이스트 진로체험캠프의 장점으로 지목했다.

‘로봇팔 만들기’에 참여한 한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직접 조립과 연결을 하면서 로봇팔을 만들어보니까 작동원리나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가 됐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이공계 진로선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이라며 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줘서 고맙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카이스트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류지영 교수는 간혹 이공계에 전혀 관심 없는 학생도 있지만 중학생은 아직 자신의 역량과 꿈을 발견해 가는 시기이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 카이스트에서도 더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철오 밀양 밀성중학교 교사

“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디자인 하는 과정”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발굴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지난 6월 22일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6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인 강철오(55) 밀성중 교사를 만나 참다운 스승에 대해 물었다.

그는 스스로를 항상 성찰한다. ‘교육은 왜 하는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학교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걸 경계한다.

1992년 봄. 강철오(56) 밀성중 교사는 그 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2년 전 학교를 떠났던 종현이(가명)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날, 그는 제자의 영정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잃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나이트클럽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귀가하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했다라면...’ 하는 안타까움 뒤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허망하게 앉아 있는 종현이 아버지를 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초임교사 시절, 고교 담임으로 만난 종현이는 흔히 말하는 ‘문제아’였다.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더니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시작한 본드와 약물에도 손을 대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지겹기 짝이 없는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는 아이에게 자질구레한 학급 일을 맡기며 다가서기도 해봤지만, 오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이를 보며 그는 무력감에 빠지곤 했다.

그 해 11월, 한 달여 가출 끝에 종현이는 결국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가끔 시내에서 마주치면 그에게 스스로없이 꾸벅 인사를 해오곤 했다. 그렇게 곁에서 떠난 듯싶었던 아이를 그는 이듬해 영안실에서 다시 마주했다.

“매년 3~4명의 아이들이 자퇴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떠난 아이들은 대부분 범죄에 가담하거나 나쁜 길로 들어섭니다. 교육이 학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은 되어주지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 한 가지쯤은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학교에 오는 즐거움을 주는 학급운영

학급운영에 대한 고민은 그러한 뼈저린 아픔에서 싹텄다. 그는 이런 저런 책을 뒤적이며 학급운영 연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생소하던 학급야영을 시작하고, 모둠원과 함께 점심 먹기, 학급단합대회, 학급등반대회, 겨울바다 여행을 다니며 아이들과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매달 열리는 생일잔치와 한술밥 비벼먹기, 삼겹살 파티 등 아이들 제안에 따른 새로운 학급행사들도 속속 만들어졌다.

국어교사인 그는 글을 통해 아이들과 더 깊이 소통했다. 아이들과 함께 쓴 일기를 중심으로 학급 한해살이를 정리하고 「고물상의 금덩어리」란 이름으로 문집을 발간했다. 고물상의 금덩어리란 ‘쓸모없는 고물들 속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문집’이란 뜻으로 아이들이 손수 지은 이름이다. 처음에는 한두 줄 겨우 써내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내와 싸운 이야기부터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이야기 등등. 킁킁 웃으며 읽다가도 솔직함 앞에선 아이들도 무장해제가 됐다.

“아이들은 의외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고, 자기 생각을 숨기려고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됐기에 자기 생각과 삶을 키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01

그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자 사고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학급문집은 10년간 이어졌다.

전국 최초 학생금연운동을 펼치다

그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다. 수년간 바뀌지 않고 친편일률적으로 진행된 봄·가을 소풍을 주제가 있는 학급소풍으로 바꿔 놓았다. 1박 2일간 떠나는 학급별 테마체험학습이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은 물론이다. 소풍을 이용한 생태기행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자연환경연수원 주최 ‘제1회 자연관찰체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간 국토순례를 떠나기도 하고, 고향의 문화유산답사와 역사기행을 다니기도 했다.

2002년에는 밀양지역 초·중등 교사와 힘을 모아 밀양어린이체험학교를 세웠다. 아이들에게 갯벌체험, 산골체험, 농작물 수확체험 등을 통해 ‘세상 공부’를 가르쳤다. ‘온 세상이 배움터’라는 그의 교육철학은 언제나 실천으로 이어졌다. 7년간 교장으로 체험학교를 이끌며 일찍부터 ‘배움 중심 교육’에 눈을 뜬 그는 지금도 밀양지역 수업연구동아리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표이자 교내 수업연구동아리 ‘배즐모(배움이 즐거운 교사모임)’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학생금연운동의 선구자(?)’는 그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식어다. 당시 학생 생활지도는 오로지 단속과 처벌에 의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아이들의 흡연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흡연이 줄지 않자, 그는 금연지도를 아이들의 손에 맡겨보라며 1994년 ‘학생금연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체벌과 처벌 위주의 학생 생활지도에 회의를 품다가 학생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연문제와

02

03



- 01 __ 형님 같은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을 바라는 강철오 교사
- 02 __ 10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학급문집은 그의 삶의 이력서이자 역사서다.
- 03 __ 학급문집으로 만든 모듬일기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금이야 체계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운동이 학교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금연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단속이 심해지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화장실이 연기로 뒤덮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었지요.”

그는 금연운동 추진위원회에 문제성이 많은 아이들을 대거 불러 모았다. 이 아이들이 어깨띠와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홍보지를 나눠 주면서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에서도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을 시상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며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그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단 2개월 만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 전교생 82%가 흡연자 감소에 동의를 표시했고, 담배를 끊은 학생도 무려 92명에 달했다.

학생금연운동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노하우를 배우려는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학생금연운동은 교육부 주요 시책으로 채택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생금연운동은 지금도 밀성고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2007년부터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좀 더 다가서고 있다. 지영이(가명)는 밀성여중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5년간 멘토로 성장을 도운 학생이다. 학생부 단골손님이라 할 정도로 사건사고를 일으키던 이 아이는 현재 경성대 연극영화학부로 진학해 연극배우를 꿈꾸고 있을 정도로 변했다. 삼성꿈장학재단 멘토 교사로 더 많은 아이들과 인연을 맺은 건 이 때부터다. 그 후로 홀어머니 밑에서 경찰관을 꿈꾸던 재현이(가명), 남편과 헤어져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둔 지우(가명)…. 강 교사는 이 아이들이 힘들 때 와서 기댈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귀를 열어주는 사람으로 옆을 지켰다.

“초임교사 시절 열심히 했지만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내 기준에서 아이들을 보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깨달아요. 아이들은 자라는 식물과 같아서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교사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아야 하지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항상 성찰한다. ‘교육은 왜 하는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학교는 어떤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걸 경계한다. 이로 인해 교사운동에도 매진했던 그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란 말을 가장 좋아한다. 교육의 본질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한 인간의 삶을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그것의 용도, 기능, 아름다움 등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처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려보고 충동질하고 돕는 과정이지요.” ㉠

나혜정 교사의 국어과 학생 중심 수업

놀이와 대화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대구경서중학교(교장 곽상순) 2학년 교실, 20여 명의 학생들이 국어 수업에 열중이다. 주제는 놀이와 대화로 여는 화법 수업. 나혜정 교사의 수업은 화법 하면 지루하고 뻔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생동감 있고 신나는 수업, 무엇보다 교사 혼자만의 무대가 아닌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다.

경서중은 자타공인 자유학기제의 산실이다. 모든 선생님이 푹푹 뭉쳐 자유학기제가 성공의 길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잘 살려 다양한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경서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나혜정 교사의 수업 장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소감은 한마디로 참 친근하며 인간적인 수업 같다는 느낌이었다.

민주주의 교육으로 배려와 경청 익혀

화법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 화법의 가장 기본인 화자(말하는이)와 청자(듣는이)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혜정 교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네스코 주관 ‘세계시민교육’의 민주주의 교육 기법을 도입했다. 화자를 리더(leader), 청자를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팔로우(follow)에 비유하여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를 먼저 소개한 것이다.

“두 사람끼리 짝을 지어 주세요. 두 사람 중에 생일이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손으로 지시를 하면 남은 사람은 무조건 그 지시대로 몸을 움직입니다.”

학생과 짝을 이룬 나 교사는 손바닥을 펴서 학생 앞에 보여주며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몸을 움직일 것을 지시한다. 교사의 지시대로 학생은 손바닥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앉았다 섰다 하다가 뒤로 돌기도 하고 빙글빙글 회전하기도 한다. 짝끼리 마주 선 학생들도 그대로 따라 한다. 생일이 빠른 사람은 손 하나로 동료들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방금 한 놀이에서 어떤 역할이 더 재미있었나요?”하는 질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당연히 지시하는 사람 역할이라는 대답을 한다. 그러나 몇몇은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도 재미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문답을 통해 지시하는 사람은 리더,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팔로우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리더는 팔로우를 잘 이끌어감으로써 빛나는 사람이며 팔로우는 리더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임을 알게 한다. 결국 리더와 팔로우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결론이다.

처음부터 화법 수업이라고 하지 않고 놀이 하나를 했을 뿐인데, 거기서 리더와 팔로우가 나오고 다시 그 리더와 팔로우가 화자와 청자가 되었다. 그리고 리더와 팔로우를 생각하며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떠

01 프로젝트 결과물을 묶어 놓은 자료집

02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놀이. 친구의 손동작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리더형'인지 '팔로우형'인지 파악하는 아이들

01



02

올려 비로소 화법 수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화법 배우며 배려와 경청의 자세 실천으로

“화법 수업은 지루하고 딱딱하기 쉽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화법이지만 우리 생활에는 꼭 필요하고 요즘 특히 문제되는 언어의 오염이나 언어폭력 등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청과 배려를 실천하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리더는 팔로우가 있어 빛나고 팔로우는 리더를 빛냄으로 인해 스스로가 아름다워진다는 깨달음을 적용하면 화자는 청자가 있어 빛나고, 청자는 화자를 빛냄으로 인해 아름다워진다.

따라서 서로가 소중하고 고귀하기에 화자는 청자를 배려하여 말하고, 청자는 화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이 단순하고 당연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생들은 리더와 팔로우를 체험해보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역할을 생각했다. 더 나아가 화자와 청자로서의 나와 친구 관계를 고찰하면서 배려와 경청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배려하고 경청하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조화가 필요합니다. 듣는이의 수준을 고려하며 말하는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등의 예절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의 맥락을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올바른 대화를 통해 조화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다. 나 교사는 수업의 말미에 고결한 자기희생도 빼놓지 않았다. 화자와 청자의 실제 대화로 예시를 드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일상 대화 녹음이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배려와 경청이 넘치는 대화를 들려주니 학생들은 웃음을 터트린다.

작은 학교의 장점 살려 교과융합 프로젝트 진행

이번 수업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사실상 학기말에 긴장이 많이 느슨한 때 이뤄졌지만 학생들은 몰입한 가운데 교사와 함께 호흡하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 교사는 그 비결로 앞서 소개한 포스트 자유학기제를 꼽는다.

“작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로 다양성과 즐거움을 경험한 학생들을 다시 갑갑한 평소의 학기제로 완전히 돌려놓으면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포스트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제의 정신을 살려서 주제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교실수업 변화 등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자유학기제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험이 있기에 완전한 자유를 줄 수는 없지만,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프로젝트 학습으로 실생활에 연계되는 배움을 구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증거로 나 교사는 레드카펫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소개했다(표 참조).

나 교사가 생각한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는 국어, 수학 등 분절된 교과서로 분절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



03 실생활과 연결되는 주제를 수업에 가져와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나혜정 교사

04 경서중학교 2학년 3반 친구들. 포스트 자유학기제를 맞아 국어수업에 활기가 넘친다.



생활 속의 문제 해결력 향상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식과 정보, 학습과 통찰을 하나의 주제에 융합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가령 도심 지역과 멀리 떨어진 학생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계획한 ‘옥포 영화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와 단원에 망라된 지식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이는 즐거움을 동반한 생활 속의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지식이 싹트고 그 지식이 문제해결능력이 되는 선순환을 구현하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생활속 작은 순간들을 문학작품으로

나 교사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조부모 세대의 경험담을 영상으로 남겨 노인들의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하는 ‘메모로(memoro) 기록유산’ 프로젝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길 말을 유물로 묻고 후배들은 지도를 통해 그 유물을 찾고 조사하는 ‘기억과 보물’ 프로젝트 등을 실천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감과 감상 등을 글로 쓰게 하여 생활 속의 작은 순간들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자신만의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글쓰기가 주목받는 요즘 교육 현장에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혜정 교사는 항상 깨어 있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수업이 타성에 젖거나 지루한 도돌이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그만큼 노력하여 수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보여주고 과시하는 수업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아름드리’ 수업 연구 동아리를 이끌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원단으로 교육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최근 EBS에도 수업 잘하는 교사로 소개되는 등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⑤

표. 레드카펫 프로젝트

프로그램명	교과	주요 활동
옥포 영화제	국어	영상이 담긴 이야기 단원과 연계, 영화 제작사를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고 성장영화 대본을 쓴 후, 핸드폰 카메라로 영화 촬영하기
	수학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인기상 등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계 관련 내용 배우기
	과학	빛의 원리 단원과 연계해 영화의 조명에 대해 이해하기
	미술	소품 및 영화 장면을 돋보이게 하는 색감에 대해 배우기
	음악	영화 배경음악 만들기
	진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 이해 및 영화인과의 만남
	정보	배경음악 삽입 및 영화 편집, 특수효과 사용

김양한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서양화를 통해 배우는 새로운 기계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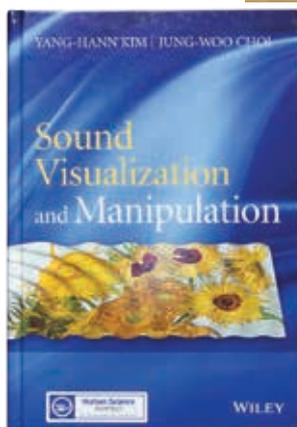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1인 용·복합 강의가 KAIST에서 처음 시도된다. 언뜻 보면 낯설기도 한 이 강의를 처음 설계하고 제안한, 기계공학과 김양한 명예교수를 지난 7월 14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국제 음향학계에서 명저로 손꼽는 『Sound Visualization and Manipulation』(2013) 겉표지에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이 유독 눈에 띈다. 이뿐만이 아니다. 뒤표지에는 ‘모나리자’그림도 함께 실렸다. 국내에서보다, 미국 등 국제 음향학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이 음향학 교재는 KAIST에서 정년퇴임한 기계공학과 김양한 명예교수가 저술한 책이다.

기계공학, 혹은 음향학과 서양화. 언뜻 보면 써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 만남의 연원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김 명예교수는 학회 참석차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엘 들렀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 교수는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그가 천부적인 소질의 화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고흐가 화가로서 그의 명성을 쌓기까지에는 피나는 연습, 또 연습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반 고흐 같은 천재 화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걸작을



01



01 국제 음향학계에서 명저로 손꼽히는 김양한 명예교수의 『Sound Visualization and Manipulation』

02 김양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가을학기부터 ‘서양화를 통해 배우는 새로운 기계공학’을 주제로 기계공학과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1인 용·복합 강의는 김양한 명예교수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스케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변환(conversion)’한 것이 그림이라면, 공학 역시 사람의 눈으로 관찰한 것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환한다’는 공통점을 그때 발견할 수 있었죠.”

공학자로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발견도 그림으로부터 있었다. 김 명예교수는 그림의 원근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리의 시각화(Sound Visualization)’라는, 음향학자로서의 새로운 개념을 후에도 출해 낼 수 있었다.

서양화와 기계공학의 융·복합 강의

‘서양화를 통해 배우는 새로운 기계공학’, 가을학기부터 김 명예교수가 기계공학과 학부와 석·박사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의 주제다. 이제까지 두 명의 교수가 자신의 분야를 담당하는 융·복합 강의는 시행됐었지만, 1인 융·복합 강의는 이번에 김 교수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 2월 취임한 신성철 총장이 추구하는 KAIST의 미래 인재상과도 부합하는 강의이기도 하다. 신 총장은 취임하면서 “융합 인재 양성으로 KAIST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피카소의 그림과 그의 열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피카소처럼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기초를 닦다 보면, 세계를 놀라게 한 그의 그림처럼, 새로운 자동차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중순 현재 강의에는 석사과정 10명, 학부생 20명 등 총 30명이 수강신청을 마쳤다. 김 교수는 “2명이 한 조로 조사 및 발표도 하고, 토론수업도 진행하려면 적정 인원을 20명 선으로 설계했지만, 이미 신청 학생이 그 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번 융·복합 강의 전반부(1~9주차)에서는 이집트·바벨론시대서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서양화의 시대별 변천과 화풍의 변화, 재료·표현방법의 진화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계공학적 접근 방법과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진다. 또 10주차 강의 이후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폴 세잔, 마네, 모네, 칸딘스키, 몽크, 피카소 등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인 서양화가들을 ‘공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게 된다. 강의를 시작되고 10월 초 연휴 기간 동안, 김 명예교수는 파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단다. 좀 더 현장감 있는 강의자료 취재를 위해서다.

“9월 한 달 동안 강의를 진행해 보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니즈도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봐요. 학생들에게 좀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흥미롭고 다양한 수업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설 때면 여전히 설레지요!”

김 명예교수는 현재 K-MOOC와 코세라(Coursera)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다. 박영진 동역학 과목 조교는 “김 명예교수님의 동역학 강좌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법과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수학적 기술 방법까지, 예제를 바탕으로 원리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명강의”라고 자랑했다.

“온라인 동역학 강의는 전공 대학생들은 물론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도 수강을 해요. 그



03

- 03_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강의. 학생들의 수업참여,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된 오류’를 들려주기도 한다.
- 04_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연구동
- 05_ 김양한 명예교수는 서양의 그림과 공학이 접목한 융·복합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 06_ 김양한 명예교수의 K-MOOC 동역학 강의의 한 장면

러나 아직은 코세라에서처럼, 학습자 간 활발한 포럼이 형성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죠. K-MOOC, 코세라와 같은 온라인 강의는 수요자가 필요한 강좌를 그때 그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는 강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김 명예교수는 퇴임 전, KAIST도 MIT처럼 클라우드에 모든 강의를 실시간 스트리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었다고 들려줬다. 그런 만큼 현재 온라인 강의의 강자인 코세라에서처럼, K-MOOC도 강의를 듣는 학습자 간 셀프러닝이 좀 더 활발해지길 바라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K-MOOC 수강생들과 좀 더 활발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명강의가 되려면 우선은 교수학습자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김 교수는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일부러 틀린 내용을 들

려줄 때도 있곤 한다. 학생들의 수업참여,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지적인 셈이다. 그 의도된 오류를 꼭 집어, 찾아내는 학생들에게는 ‘포상’도 한다. 초콜릿, 과일, 음료 등등.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들도 강의실 안은 저절로 즐거워지곤 한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강의. 그런 강의가 학생들에게는 진짜 좋은 명강의죠. 그러한 강의를 통해 학문에 대한 진정성을 학생들이 배웠으면 하는 게 교수로서 바람이기도 하고요.”

김 명예교수는 또 명강의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강의라고도 말한다. 그만큼 가르침에 대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준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설 때면 여전히 그는 가슴이 뛰고, 설렌단다.

비영어권 최초로 ‘로싱상’ 수상

인터뷰 당일, 김 명예교수의 연구실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이 확정됐다는 고영빈 박사다.

“교수님께서서는 공학도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전공지식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공부하고, 가르침에서는 또 어



04



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연구자는 연구에 임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등등. 수업시간에 강조해 주신 말씀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정년퇴임 이후 김 명예교수의 강연은 대학 강의실에서 확장, 각종 연구소와 과학 관련 단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피카소 공과대학’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서양의 그림과 공학이 접목된 융·복합 주제의 강연들이다.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 기계공학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어 해요. 피카소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컨버전했는지’, 그의 걸작 ‘아비뇰의 처녀들’에는 어떤 배경 스토리가 담겼는지, 또 입체파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등을 통해 그의 창조적이었던 작업과정을 들려주면, 참석자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곤 하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KAIST에 부임한 김양한 명예교수는 2008년 경주 에밀레종에 대한 울림의 비밀을 밝혀 화제를 낳았다. 또 지난 2015년에는 ‘3차원 가상스피커’를 세계 최초로 개발, 비영리권 학자로는 최초로 미국음향학회(ASA)가 수여하는 ‘로싱상’을 수상했다.

김양한 명예교수는 이번 ‘서양화를 통해 배우는 새로운 기계공학’ 강의 안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KAIST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복합 교양강의도 제안할 계획이다. ⑤



충북 청주 오창고등학교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

함께 달리는 마라톤의 힘! 대학 진학까지 잡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오창고등학교(교장 신우성)는 2016년 학업 중단률 7.17%에서 올해 1.9%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다.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를 기획·추진하고 있는 권은심 교무부장교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청주 오창고는 마라톤 교육이라는 특화된 체험활동을 제시하는 학교로 올해로 7년째 전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단체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마다 출전하는 학생들과 제킨(가슴과 등에 붙이는 번호표)은 바뀌지만 주황색 오창고 로고가 찍힌 러닝조끼를 입고 달리는 학생들의 열정은 언제나 뜨겁기만 하다.

오창고의 마라톤 교육은 권은심 교사가 처음 부임하던 2011년에 시작했다. 당시 2학년 학년부장이었던 박대석 교사가 단체마라톤으로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 협동심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권 교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의 모습으로 그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왔다.

“지금은 인근지역에서 오창고 하면 자연스럽게 마라톤을 떠올릴 만큼 단체마라톤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사실 이전에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수준 등이 부족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로 알려졌거든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과 투지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학생들에게 잠재된 정신력과 투지를 깨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그 방편으로 마라톤을 선택했어요. 학생들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현재와 같이 정착하게 됐고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마라톤의 기적... 학업 중단률 1/4로 줄다

권 교사가 본격적으로 마라톤 교육을 실시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학생들의 참여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했고, 또 담임교사들도 설득해 학생들과 함께 달리면서 소통하도록 유도했다. 권 교사의 열정이 통한 것일까. 회를 거듭하며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참여도도 높아져만 갔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달리기 시작하자 교육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정 먼저는 학생



01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올해로 7년째 단체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

02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학생들과 이덕찬 교감(맨 오른쪽), 김진호 코치(맨 왼쪽)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02



03

- 03_ 마라톤 대회 수상 메달과 트로피
- 04_ 학생들은 마라톤을 '땀의 우정'이라고 부른다.
- 05_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마라톤 대회에 함께 참가한 모습



04

들의 학업 중단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반이었지만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완주하니까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끼리는 땀의 우정이라고 말해요.” 2학년 최민하 학생의 말이다. 함께 달리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생겼다. 또 옆에서 함께 걷고 달리기를 반복하며 학생들과 보조를 맞추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덩달아 상담도 이뤄졌다. 친밀감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유형의 마라톤러들을 만나면서 소통하고 학교 울타리 밖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도 얻었다.

올해 오창고의 학업 중단률은 1.9%, 전년 대비 4분의1 수준이다. 그만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반증한다.

마라톤 대회 우승상금 기부로 인성 UP

이제 다음 단계는 가치 부여였다.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달리면서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학생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기부와 나눔 말예요.”

권 교사의 말이다. 즐겁게 달리다보니 입상을 하는 학생도, 상품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갔다. 권 교사와 학생들은 그렇게 받은 상품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학교 인근 100여 가구에 쌀 한 포대와 김장 한 박스씩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권 교사가 제안한 ‘달리기를 통한 기부’는 자연스럽게 인성교

권은심 교사가 전하는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Tip

첫째, 담임교사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창고가 이렇게 마라톤 교육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학부모의 뜨거운 지원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오창고 학부모들은 작은 테이블에 에너지바, 빵, 우유, 바나나 등을 준비해준다. 당연히 학생들의 사기가 올라간다.

둘째,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년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본 결과 5월 이후의 대회나 가을에 열리는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05

육으로 이어졌다. 받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나눔의 즐거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권 교사는 “상금으로 탄 쌀과 김치 등을 전달하러 갈 때면 학생들도 자랑스러운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싱글벙글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며 “학교생활도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고, 자긍심이 학생들 마음에서 움트기 시작한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 같은 교육적 효과를 실감하면서 올해부터는 모든 마라톤 대회를 분석해 ‘기부 및 지원’의 취지가 있는 대회만을 선별해 참여하고 있다. 4월 9일 ‘핑크런마라톤 대전대회’에는 학생 91명이 출전해 ‘유방암 환우돕기’에, 5월 14일 ‘유관순평화마라톤 대회’에는 116명이 출전해 ‘위안부할머니 지원사업’에 참가비를 기부하며 마라톤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명문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다

오창고에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는 10km 마라톤을 연 3회 이상 완주한 학생에게 학교 장 상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만 해도 벌써 3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학생수가 80여 명이 넘는다. 이색적인 것은 교사는 물론 학부모 참여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님이 평소에 수영이나 클라이밍 등을 즐기실 만큼 스

포츠를 좋아하세요. 학교에서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부모님도 함께 뛰겠다고 하셨을 때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2학년 김현영 학생은 지금까지 총 6번의 마라톤에 출전했다. 모두 부모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뛰어 주셨다. 달리면서 지치고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이끌어줘 완주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5월 ‘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에서는 2주간 깃스를 해야 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완주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김현영 학생은 달리기를 통해 인내심과 투지라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을 얻었다. 이는 비단 김현영 학생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마라톤을 즐기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 가는 일, 그것이 달리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완주하겠다는 목표, 함께 뛰면서 주고받는 긍정에너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때 얻는 성취감과 자존감 그리고 투지, 이것은 ‘마라톤 그랜드슬램 인증제’가 학생들에게 준 선물이 분명하다.

오창고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3학년 143명 중 110명이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졸업생 중 85.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성공했을뿐 아니라 수도권 중 명문대로 꼽히는 6개 대학과 울산 과학기술원 등에 입학하면서 ‘함께 달리는 것의 힘’을 입증해 보인 셈이다.

나도 창체스타!

1학년 이세범 학생은 오창고에 와서 벌써 세 번이나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참가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완성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성취감을 느껴요.”

포기하고 싶은 힘든 순간이라도 잘 견디면 행복한 순간도 찾아오는 것이 마라톤과 우리가 살아갈 삶과 닮은 점 같다고 말하는 이세범 학생, 올해 오창고에 입학해서 벌써 30km를 완주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있을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출전해 인내심과 근성을 키우고 싶다고 말한다. ㉠



한초롱 교사의 초롱초롱 동요학교

평범한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교사의 힘

열려라~ 열려~ 신비의 바닷길
 바다를 걸어가는 길 ♪
 하루에 한 시간 기적이 일어나
 바다의 비밀이 드러난다. ♪
 바다야 갈라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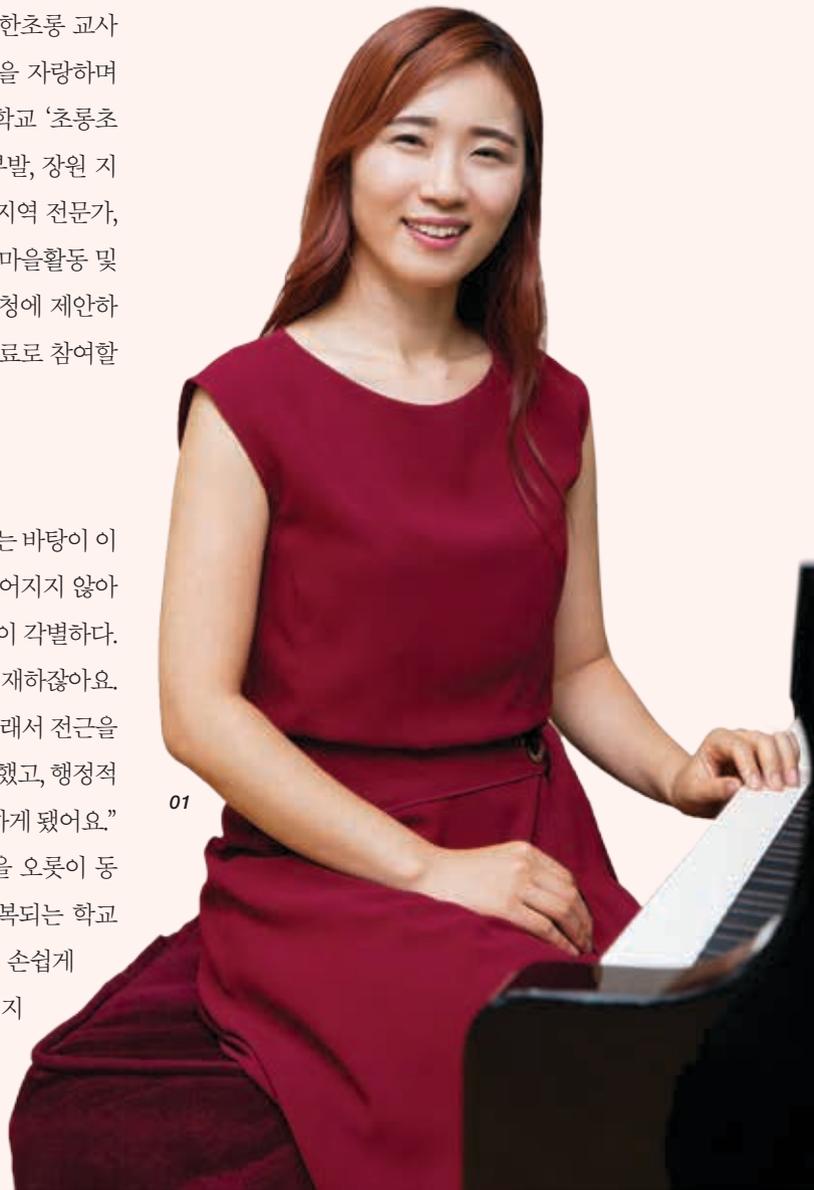
한초롱 교사가 지은 노랫말에 어린이들의 멋진 음색이 곁들여져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증포초등학교 음악실. 아미초등학교 한초롱 교사는 매주 월요일 증포초에서 20명 남짓한 아이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동요를 가르친다. 올해 2년째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인 꿈의 학교 ‘초롱초롱 동요학교’를 운영 중인 한 교사는 주4회 이천의 증포, 안흥, 부발, 장원 지역의 아이들 60여 명에게 동요를 지도한다. 꿈의 학교는 마을과 지역 전문가, 교육자들이 청소년의 창의력과 자기계발을 위해 학과 학습 외에 마을활동 및 미래직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매년 초에 교육청에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청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찾아가는 학교 밖 학교’이다.

학생이 찾아가는 학교, ‘초롱초롱 동요학교’

증포초는 한초롱 교사에게 조금 특별한 곳이다. “동요를 가르치는 바탕이 이곳에서 시작됐고 내가 떠나면 아쉬워할 아이들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꼬박 6년을 근무했다. 나의 청춘의 공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담당교사가 떠나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당시 제가 떠나면 상실감을 느낄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근을 가셔도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동요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행정적인 부분을 알아보던 차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꿈의 학교에 신청하게 됐어요.”

올해 교직경력 10년차에 접어든 한초롱 교사는 8년이란 시간을 오롯이 동요교육에 힘써왔다.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한 교사는 반복되는 학교 생활 속에서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남녀노소 손쉽게 부를 수 있는 ‘동요’를 발견했다고 한다. 초창기 어린이합창단을 지



01



01 경기 이천·성남지역의 어린이 60여 명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한초롱 교사
 02 초롱초롱 동요학교 개교식 모습
 03 꿈의 학교 중창단, KBS2 TV '누가누가 잘하나' 방송녹화

도하는 멘토지휘자의 도움으로 배우고 가르치기를 반복하며 동요의 ‘맛’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한초롱 교사는 합창단을 상설로 운영, 노래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해 왔다. 때문에 합창대회 때만 반짝 연습하고 대회 종료와 함께 해체하는 임시 운영의 합창단과는 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연합해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누가누가 잘하나’ 방송녹화를 비롯해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 군인가족을 위해 공연을 하기도 했다. 문화소외지역인 이천에서 ‘동요’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으며 감수성이 무럭무럭 자란다.

결과보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다

한초롱 교사는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며 초롱초롱 동요학교에 동참하는 2명의 선생님들과 매주 장소를 제공해 주는 학교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한 교사는 합창 지도에도 열정적이지만, 동요를 만드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동안 동요 작곡곡만 30여 곡. 대회를 통해 공개한 작사 동요 16곡, 작곡 동요가 6곡에 이른다. 위안부할머니의 억압받은 인생을 노랫말로 담은 ‘소녀의 꿈’은 이미 전국에서 불리는 노래가 되었으며, ‘열려라 바닷길’은 부산MBC 창작바다동요대회에서 금상을 수상, ‘바다의 날’ 행사에 초청되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매년 150여 곡의 창작동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노랫말을 가만히 읽으면 한편의 동시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노랫말로 된 동요를 많이 듣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한 교사는 합창을 지도하며 갖게 된 철학이 있다. ‘준비는 철저하게,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무대에 오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곡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다행히 운도 따라주어 지도한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동요작곡가로서, 지도자로서 그 역량도 인정받고 있다.

음악실에서 가만히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아이들의 실력이 범상치 않다. 한초롱 교사는 “평범한 아이들이 매 순간 노력을 통해 특별함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②



03

방학을 끝내고 서로 안부인사 묻기 오랜만에 만나 서먹해진 친구에게 “편지 왔어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아요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맞이한 아이들.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합니다. 방학동안 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놀이로 어색함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놀이를 통해서 서로가 방학 동안 한 일을 정리하고 서로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놀이 방법을 알아봐요

- ① 교사는 인원 수 만큼 편지봉투를 준비하고 봉투에 번호를 순서대로 쓴 다음 봉투와 공통 질문지를 나누어 줍니다. 질문지에는 3가지 정도 질문을 넣습니다. 이 질문은 선생님이 학년과 상황에 맞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 방학 동안 갔었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2) 방학 동안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3) 방학 동안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② 봉투에 작성한 질문지를 넣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선생님은 적당히 섞어서 다시 한 명 한 명씩 나누어 줍니다. 이 때 자기가 적은 번호 봉투를 받으면 재빨리 바꿔줍니다.
- ③ 놀이가 시작되면 자유롭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첫 인사를 “방학 동안 잘 지내셨어요?”라고 묻습니다.
- ④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본인이 들고 있는 대답이 아닌 자기가 적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내가 들고 있는 대답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질문을 합니다. 이 놀이는 자기가 받은 봉투의 주인을 찾아주고 자기가 적은 봉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봉투의 주인을 찾으면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 ① 이 놀이는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는 놀이를 통하게 되면 더욱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② 내가 받은 봉투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질문을 하고 들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방학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친구의 방학생활을 알아보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8월에 하는 이유

- ① 8월은 2학기가 시작하는 달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만나지 않은 방학 동안의 시간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은 활기찬 2학기 생활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기초조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② 2학기는 교우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정 친구가 아닌 학급의 모든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응용해 보세요!

진실게임

- ① 선생님이 종이를 나누어 주고 종이를 4조각으로 나누어 쪽지로 만들도록 합니다. 각 쪽지에는 방학 동안 자기가 한 일, 자기의 감정 등 자신의 방학생 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단, 2가지는 진실로, 2가지는 거짓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O, X로 표시를 합니다.(선생님도 함께 해주세요)
- ② 다 적은 종이는 2번 정도 접어서 바구니에 넣고 마 구 섞어 줍니다.
- ③ 골든벨 판을 준비합니다.(이면지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쓰고 선생님이 임의 대로 종이를 뽑아서 문제를 맞춥니다.
- ④ 그리고 방식은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1) 10문제 중 가장 많이 맞힌 사람을 뽑는 방법, 2) 10문제를 가장 먼저 맞히는 사람을 뽑는 방법. 적절한 방법으로 우승자를 뽑고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다시 자기 종이를 가져가서 모둠활동으로 방학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교육사다리 소통과 협력으로 만듭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5일 취임 후 시도교육감 및 전국(전문)대학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개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하게 얽힌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첫 출발”

취임 이전부터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걸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친 김상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취임 후 첫 대외행사로 7월 8일 충청권교육청(세종·대전·충북·충남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2017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에 참석한 김상곤 부총리는 충청권역의 혁신학교 교사, 학부모 등 교육가족 1천 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첫 출발이기를 바란다.”는 말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혁신학교 정책은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재직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당시 경기발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새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에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첫 행보로 혁신학교 관련 행사를 찾은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치원교육의 공공성을 살려내고 초·중등교육의 다양한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 내며 고등교육이 서열주의와 학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이루는 입시제도도 여기에 맞춰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생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학교, 만들고자 하는 교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며, 교사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혁신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개혁의 출발을 알린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가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앞으로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겠다는 김상곤 부총리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거점국립대가 성장하도록 지원”

또한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만나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취임 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로서 전국의 203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호성 단국대 총장, 윤여표 충북대 총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 총장, 최일 목포대 총장 등과 함께 김상곤 부총리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김상곤 부총리는 또한 “대학이 갖고 있는 서열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 거점국립대가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강소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고등교육의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호성(단국대 총장) 회장은 “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 폐지가 거론되고 있어 (대학재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재정문제를 토로했다. 대학과의 첫 만남에서 첫 번째 단추를 꿰듯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개혁에 국공립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단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 제고가 중요하다. 국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지역거점으로서 공공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같은 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도 연이어 만난 김상곤 부총리는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전문대학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 열자”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수년 간 쌓여온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의 고리를 풀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서로 ‘교육 협치’의 새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난 7월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이미 한차례 간담회를 마친 김상곤 부총리는 7월 19일에는 17개 시도교육감과 만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그동안 다양하게 얽힌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유·초·중등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공교육을 혁신하며, 소외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한 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해 나갈 것이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가칭)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현장성 높은 정책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상견례,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우리교육의 현안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김상곤 부총리의 의지다. ②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 가족과 교육부 직원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중차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낮고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하여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초등 돌봄 교실 확충과 같은 지난 정부의 의미있는 정책들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신장하고 지역의 국립대학과 건설하고 유능한 사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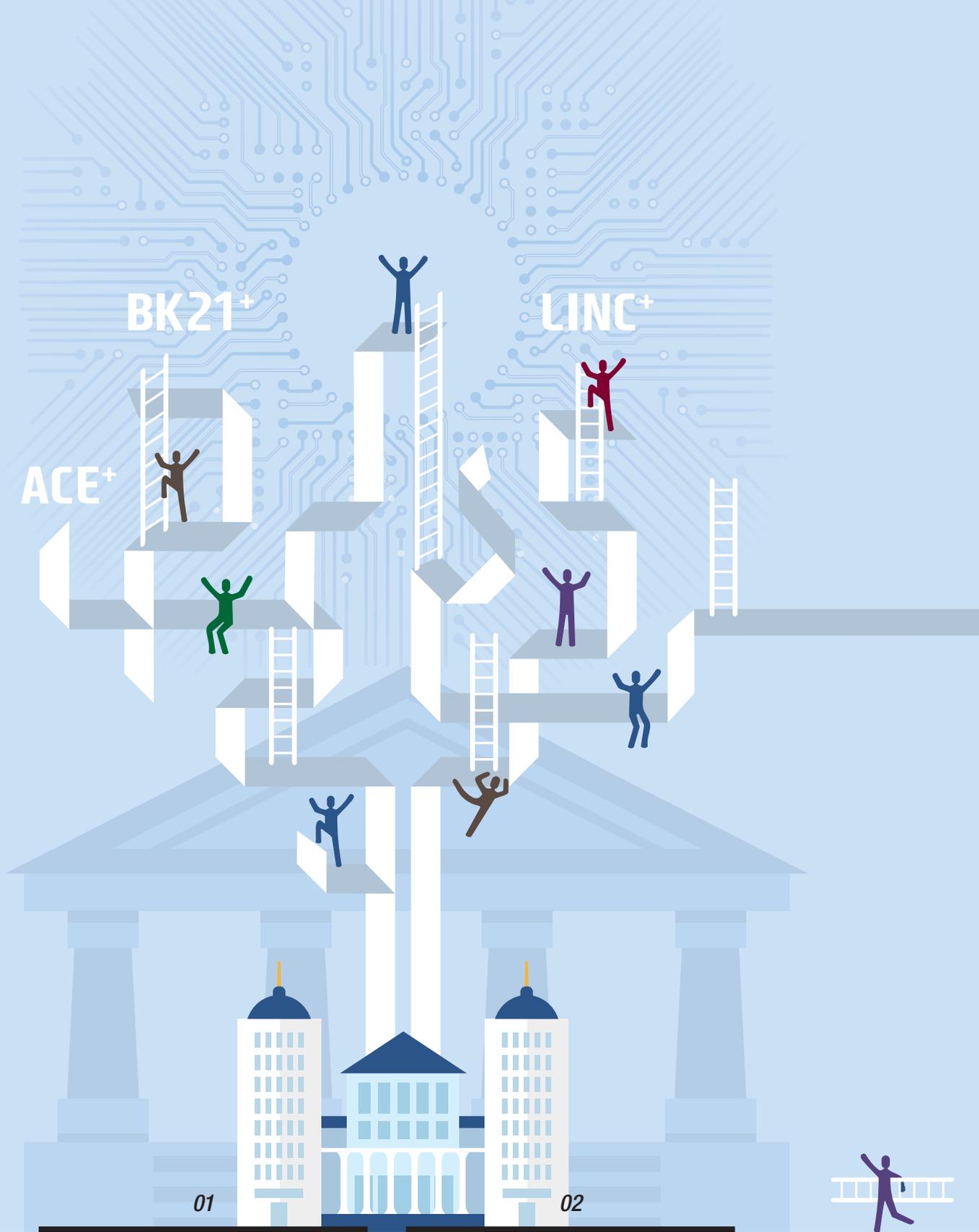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교육가족 여러분!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엄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국민과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생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 상 곤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집단 융합연구'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키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이 진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노동자가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숙련도 높은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는 것.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학습 공간, 학습법도 대대적으로 혁신을 일구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속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교육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우리대학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ACE 플러스 사업, LINC 플러스 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이 이뤄지는 대학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03

0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미래성장 동력으로

우수연구인력 키우는 BK21 플러스 사업 수기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집단 융합연구’



글_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자명종대신에 스마트패드로 알람을 맞춰놓는다. 그러곤 페이스북을 이리 저리 뒤적거리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잠이 든다.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이젠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진을 찍고 있어서 카메라가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다. 생활만 그러한 게 아니다. 백과사전이 사라진지 오래고, 영어사전을 들춰본 적도 먼 옛날 같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팅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사회학자들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퍼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동물을 사냥하고 주변의 과실을 채집하던 시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혁명은 시작되었다. 이후 증기기관으로 대표하던 동력의 창조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산성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디지털화 되며,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든 분야에 컴퓨팅이라는 역량을 내재화하여 그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되어 데이터를 양산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 실세계를 가상세계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변화에 발맞춰 대학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대학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 그 역량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을 갖춰야 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적 성장과 과학의 발전은 대학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고, 사회적인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학과나 학문단위를 개편·신설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변화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연구와 교육이다. 과거의 연구는 개별적이었다면 새로운 연구의 패러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연구와 교육이다.
과거의 연구는 개별적이었다면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은
목표를 갖는 집단 융합연구이다.

다임은 목표를 갖는 집단 융합연구이다. 이는 개별 연구 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능력을 결합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목표성을 갖기 때문에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대학 내 그리고 대학 간 연구그리드를 구축해야한다. 교육시스템은 수직측면으로는 학과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평측면으로는 교양교육과 연계 및 복수전공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학문영역을 횡단하는 수평측면의 혁신이 필요한데, 현재의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과를 횡단하는 가상학과 같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성을 증진을 위해서는 학문영역을 관통하는 교양교육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글쓰기와 컴퓨팅의 이해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시스템의 횡단적 융합 지원을

전문인으로서 컴퓨팅 역량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번역시스템, 기사작성 알고리즘, AI변호사, 자율주행, 빅데이터 분석 등 요즘 이슈가 되는 주제들은 사실 컴퓨터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즉 언어전문가, 저널리스트, 변호사, 공학자, 컨설턴트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충분한 지적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컴퓨팅이라는 역량을 가졌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 분야별 전문성이 하나의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과의 교육과정을 횡단하여 습득함으로써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교육과 연구가 횡단하여 융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의 횡단적 융합은 여러 분야의 교육을 대등한 관계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이 있는 후, 타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잘못된 융합연구나 교육은 이도 저도 아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융합의 방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타 분야의 전문성을 내재화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학의 학문단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그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㉞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키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대학교육도 이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부교육 모델을 창출·확산시켜온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플러스 사업)이 올해로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ACE 플러스 사업 우수사례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지원시스템 분야에서는 상명대와 중앙대,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순천대가 각각 선정됐다. 2010년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추진돼 온 ACE 플러스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선정된 ACE 플러스 우수사례 대학의 공통된 키워드는 ‘창의와 융합,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었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세계 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전과 창의·융합·소통 역량 갖춘 인재 양성

서울시립대의 경우 도전적이면서 안정적인 융합교육 운영으로 자유융합대학 신설과 통섭전공 개발 및 운영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는 학생자기개발 통합관리체제 레인보우 시스템(Rainbow System)으로, 상명대는 소셜러닝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학습공동체 ‘피어(Peer)오름’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상명대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습활동이 문화체육관광부(제주지역 ICT 관광안내 플랫폼 개발)와 기업, 금융기관 등과 연계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상명대는 특히 프로젝트 기반 학습공동체의 의사소통, 협업 및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공동체 플랫폼 CORNu(Community + Learn + University)을 개발, 도입했다. 상명대는 피어(Peer)오름 페스티벌을 열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



01 서울시립대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자유융합대학과 통섭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02 중앙대의 ACE 학생 서포터즈
 03 1:1 혹은 소규모 강의로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중앙대 CAU 세미나 수업



한 학습활동 성과를 여러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중앙대 Edu-Frontier사업단에는 전국의 대학으로부터 레인보우 시스템에 대한 문의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잦아졌다. 2014년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중앙대 ACE 플러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Edu-Frontier사업단장 박경하 교수는 “레인보우 시스템은 학생들이 비전을 스스로 설계하고, 향후 진로맵을 선택하면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한 도전과 창의, 융합, 신뢰와 소통 역량을 갖춘, 중앙대의 교육이념인 다빈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내용 중 하나는 학생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교수제 선진화 및 고도화다. 학생 수가 많은 대형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에서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앙대는 대단위 강의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강의인 ‘CAU 세미나’를 개설, 운영 중이다. CAU 세미나에서는 매학기 지도교수와 강의계획안에 따라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전공 및 커리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1학년 학기 동안 CAU 세미나는 의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 이 CAU 세미나의 모든 상담, 과제 수행 활동은 레인보우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고, 지도교수와의 상담 데이터는 이곳에 모두 축적된다.



글로벌 문화탐방 등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규익 학생은 “CAU 세미나의 3D 디지털 설계 연구실(지도교수 최영)·지능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연구실(지도교수 김태형) 랩 탐방을 통해 평소에 궁금해 했던 부분을 비로소 알게 됐다. 고학년에서 공부할 분야들을 미리 경험하게 돼 앞으로 배울 전공에 대해 더욱 큰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됐다.”며 CAU 세미나 수업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경하 단장은 “중앙대는 앞으로 학생들이 입학에서부터 사회진출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재학 중 커리어와 경력증명서 등을 레인보우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CE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들은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중앙대는 이번 하계방학 동안에도 ‘ACE 플러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문화탐방, 집중영어코칭, 1:1 취업/진로컨설팅, 문화예술아카데미, 한국역사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해외 문화체험을 높이기 위해 ‘세계문화지리아카데미’, ‘다빈치 예술여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학기 방학 때마다 유럽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탐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㉓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미래성장 동력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 대학들도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적응력이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에 한창이다.

지역과 상생하는 바이오 산학협력 선도대학

올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글로벌캠퍼스)는 바이오 분야의 융합교육에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건국대는 농축산 바이오와 생명과학, 의·생명 분야가 강한 대학으로 학문적 강점과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충청권 힐링 바이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충북 충주시가 당노바이오특화도시와 힐링휴가도시를 주창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두 캠퍼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상생 산학협력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기업이 동반성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국대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재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를 통해 두 캠퍼스는 서로 다른 강점이 있는 전공을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특성화해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캠퍼스 LINC 플러스 사업단장 노영희 교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취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 대표 산학협력 대학으로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과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CK상생협력발전위원회와 함께 충청권 산학협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국대는 힐링바이오공유대학이라는 캠퍼스 공동의 실험적인 교육시스템과 리빙랩 등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의 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 창업트랙 및 창업교육 및 공간 등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전남대는 그동안의 산학협력단 성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체질을 산학선도형 대학으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대학-기업 간의 산학협력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사회로까지 확장시킨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전남대는 대학이 보유한 석·박사급 창의인재와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사업단의 가치를 ‘ConnecT-YOU’로 정했다. 즉 전남대의 창의 인재와 융합지식이 기업과 기관, 지역사회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





- 01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상생 산학협력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안국건강과의 업무협약 모습
- 02 전남대는 쌍방향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기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확장시킨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LINC 플러스 사업단 출범식

고 있다. LINC 플러스 사업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대학발전이 곧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유 가치를 창출한 고도화된 산학협력 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전남대 LINC 플러스 사업단은 한국전력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대학교 병원, 아시아문화원 등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에너지융복합 △친환경자동차 △글로벌마트농업 △의료융복합 △문화예술융복합 등 5대 특화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특화 분야별로 지역 혁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산학협력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CO-LAB, 옴니커뮤니티, CNU Plus, 로컬챌린지 등 쌍방향 산학협력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공헌 계획으로 성장단계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주문제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김재국 사업단장은 “산학협력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다양화하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지역의 인재양성, 기술개발, 지역 고용안정을 달성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위한 134개 LINC 플러스 사업단 출범식 개최



134개 대학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플러스) 사업단이 한 자리에 모여 출범식을 갖고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다짐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7월 12일 충남대학교에서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LINC 플러스 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혁신 지원, 현장적응력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LINC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일반대 75교, 전문대 59교의 사업단 관계자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청렴서약식 및 동판 수여식을 가졌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LINC 플러스 대학의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은 사회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혁신에 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간다고 밝혔다.



우수연구인력 키우는 BK21 플러스 사업 시기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로 구성된 사업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년 1단계 BK21 사업으로 시작해 19년간 48만 명의 인재를 지원해 왔으며, '16년 현재 과학기술 약 2만 7천 명, 인문사회 약 3천 명 등 석·박사급 인재 약 3만여 명이 지원 받고 있다. BK21 플러스 사업에 총 545개의 사업단이 참여 중이다.

약사 아닌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했던 시간들

김소진 예일대 의과대학 연구원



이 글을 통해 아직 미완성의 단계이지만 지금의 내가 어떻게 연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대학 시절, 우연히 선배를 만나러 간 약제학 연구실에서 밤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약사의 길이 아닌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60여 명의 동기들 중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 2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는 큰 모험이었다. 학위 과정에서 패혈증의 발병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약물학적 접근을 통해 치료해내는 것에 몰두하였다. 사망률이 30% 이상인 임상적으로 매우 위급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도 그리고 7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치료약물이 없는 대표적 난치성 질환이다. 따라서 패혈증을 연구하는 동안 보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우스갯소리로 박사학위는 똑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고통을 잘 참아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도 있다. 연구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역시나 관련 분야의 학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BK21 사업단에서 학회 참석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고, 그 덕분에 나는 매년 최소 1군데 이상의 학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특히나 3년차 때에 참석한 HMGB1 World Congress에서는 패혈증 동물 모델(현재까지도 임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모델)을 개발한 분을 직접 만나고 명함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떠오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참으로 귀중한 순간이었다.

지금의 나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내고 그 실적을 인정받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학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만약 그렇게 하길 원했어도 내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지금까지도 학위 기간 동안 경제적로나 학문적으로나 나를 든든히 지원해준 BK21 사업과 글로벌박사펠로우십 등 많은 국가·교내 지원 프로그램에 감사하다.



교통사고 없는 세상 위해 인공지능 자동차기술 연구



조기춘 프랑스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 연구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운전하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 만약 인공지능이 대신 운전하면 어떨까?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교통사고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운전자가 없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한다.

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기 위하여 프랑스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래된 자동차 역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원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와 기술들을 배우며 재미있게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나는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입학해 컴퓨터, 기계, 전자, 정보통신 등에 대한 기초를 배웠으며, 2013년에는 BK21 플러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 창의인재양성 사업팀에 참여하였다. 한양대학교의 BK21 플러스 사업팀의 목표는 글로벌 미래자동차 인재양성과 미래자동차기술 연구에 있다. 우리 사업팀에서는 최신 자동차 연구 시설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영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 및 영어 논문 작성을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발표 및 문서작성의 적응력을 높여주어 세계적 연구소 및 기업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BK21 플러스 사업팀의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은 내가 발레오에 입사해서 세계적인 연구진들과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었다. BK21 플러스 사업팀에서 나는 사람의 지능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컴퓨터를 통하여 구현하는 지능형 자동차 연구를 수행하였다. BK21 플러스 사업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성과는 IEEE의 새로운 기술 및 논문을 소개하는 IEEE Innovation Spotlight에 소개되기도 하고, 연구한 기술들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자동차들이 도로에서 주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유수의 연구소 및 회사들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BK21 플러스의 제도적, 경제적 지원은 우리나라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데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BK21 플러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고 교통사고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⑦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_ 교육 분야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과제 실천을 약속했다.<편집자 주>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오는 '18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기존 25%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년부터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 지원비·교과서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2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18년부터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입학금은 단계적으로 폐지기로 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된다.

이를 위해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는 줄이는 대신 선택과목은 확대한다.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구축을 위해 '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 교육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외교·국제교·자사고의 일반교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기초 학력 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18년1수업2교사제 등 단위학교자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교장공모제를 늘리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추진·적용하고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도 추진기로 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에서 격차를 해소한다.

'21학년도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 확대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다문화·탈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기로 한다. 아울러, 대입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에 나선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와 성인평생 학습을 활성화한다.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하고, 대학 재정 지원사업 전면 개편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 순수 기초 연구 예산은 약 2배 증액하는 등 도전적 연구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를 확대하는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이 개선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선도 핵심 교원을 육성한다. 내년부터는 교육용 오픈마켓을 구축·운영하고, '20년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노후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또한, '18년까지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 조치를 마련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유치원 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를 새로 구축한다.

지난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이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19년부터 자율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기능도 전면 개편된다. 올해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단위학교 자치 강화와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청와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19)

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_ 교육 분야

10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고교 무상교육 실현 •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전환 • 기초학력 보장 및 1수업 2교사제 •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미래사회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 대입제도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강화 •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 전문대 질 획기적 제고 • K-MOOC 등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 교육민주주의 회복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기능 개편 • 단위학교 자치 강화 •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하는 미래 교육 플랫폼, K-MOOC

인도의 자발푸르(Jabalpur)에 살던 17세의 아몰 바브(Amol Bhave)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MOOC 사이트에서 '회로이론과 전자공학(circuits and electronics)'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면서 그의 미래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 MIT에 합격한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MIT를 졸업하고 현재 Facebook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해외 토픽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K-MOOC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의 우수 강좌를 공개·공유하여 대학교육의 혁신을 유도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을 목적으로 K-MOOC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인 K-MOOC 사업 정책을 콕콕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실>

Q MOOC란 무엇이고, 왜 MOOC가 중요한가요?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서, 수강 인원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웹 등을 기반으로 학습이 가능한 공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 운용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MOOC는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의 순환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K-MOOC는 언제, 왜 시작되었나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K-MOOC는 '12년부터 미국 Coursera(스탠포드대, 예일대 등), edX(하버드대, MIT 등), Udacity(스탠포드대, 조지아공대 등)를 비롯하여 영국(FutureLearn), 프랑스(FUN), 독일(Iversity), 중국(XuetangX), 일본(JMOOC)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형 MOOC인 K-MOOC는 기존 대학 수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14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의 MOOC 선도대학에서 개발한 총 27개의 최고 강좌들을 탑재하면서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MOOC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양질의 강좌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 운용 서비스입니다.

Q K-MOOC를 통해 학습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하기

- ① 홈페이지 이용 : www.kmooc.kr 접속하기
- ② 모바일 이용 : 앱마켓 접속 후 'K-MOOC' 검색하기 →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회원가입

- ① 회원가입 메뉴 선택하기
- ② 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 입력하기
- ③ 회원정보(E-MAIL) 확인 후 인증절차 완료하기
- ④ 로그인하기

강좌수강

- ① 듣고 싶은 강좌 선택하기
- ② 수강 신청하기
- ③ 강좌 수강 후 이수 완료하기

이수증 발급

- ① 이수증 발급 메뉴 선택하기
- ② 이수증 열람 후 발급하기

Q K-MOOC의 학습자들은 누구입니까?

2017년 7월 총 166,344명의 학습자가 K-MOOC 홈페이지에 가입하였습니다. 회원가입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미만인 15%, 20대가 36.9%, 30대가 16.3%, 40대가 16.8%, 50대 이상이 14.9%로 K-MOOC 학습자는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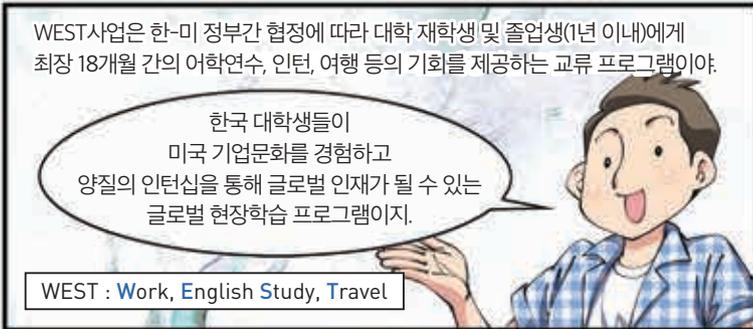
Q K-MOOC에서 어떤 강좌들을 들을 수 있나요?

K-MOOC 강좌는 인문·사회 계열, 공학 및 자연계열, 교육 및 의학계열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은 K-MOOC를 통해 서울대「우주와 생명」, 고려대「생물학적 인간」, 성신여대「발레:융합문화예술의 실제 I」 등의 국내 우수 대학들이 개발한 약 317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17년 말 예정). 특히 2017년도 강좌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등에 초점을 둔 강좌가 포함되었습니다.

Q K-MOOC를 수강하면 뭐가 좋나요?

K-MOOC를 수강하면 개인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학생은 사전 수업 준비 및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전과(前科)학생의 경우 선수학습이 가능합니다. 일반학습자는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에 활용하거나 각종 자격, 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2회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중 일부는 K-MOOC를 활용하여 반도체, 드론, 게임 앱 등의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자신의 진로 및 희망 학과를 고려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시니어들에게도 개인 취미 활동은 물론이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대학생, WEST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다



WEST 모집 일정과 프로그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 www.worldjob.or.kr 국립국제교육원 www.niied.go.kr WEST 페이스북 www.facebook.com/ggi.west

교육논단

'감정'을 배우다



마음의 틀을 바꾸는 감정교육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교실 속 실천

마음의 틀을 바꾸는 감정교육

글.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민지는 초등 1학년 아이라기에는 말하기, 읽기 능력 등 겉으로 평가할 만한 인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하지만 문제는 민지의 '제멋대로 감정'이다.

그날은 도미노 세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미노 세우기의 중간쯤 되었을 때 민지가 도미노를 휘 쓰러뜨렸다. 당황한 선생님이 물었다. “민지야, 왜 쓰러뜨렸어?” 민지의 대답은 “그냥요.”였다. 어느 날 민지는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의 펜을 그냥 뺏어갔다. 놀란 선생님이 “민지야, 펜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어. 무슨 이유가 있니?”라고 묻자 역시 “그냥요.”한다. 민지의 돌발행동은 어른조차 당황하게 한다.

가족 사이에서는 공주, 소황제로 떠받드니까 몰랐다가 문제는 학교에 가면서 불거졌다. 자신의 맘대로 해놓고는 아이들이 “왜 그래, 너?” 그러면 “그냥”이라 대답하는 민지를 이해하고 좋아할 또래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담임 선생님은 감정의 업앤다운이 극명한 민지의 상황을 엄마와 상담했다. 엄마는 반신반의하면서 상담의 마무리쯤에는 이렇게 인정했다. “민지는 감정을 조절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래도 그래, 저래도 응, 하다 보니 늘 자기가 잘하는 줄 알 거예요.” 민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저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아이였다. 영락없는 감정교육 부재로 생긴 결과였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엄마로부터 전해들은 아빠는 말했다.

“내 버려둬. 자신감 있잖아. 나도 그렇게 컸어. 근데도 잘 컸잖아.”

감정교육 왜 필요할까?

저마다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감정들 속에 살아간다. 두 살이면 거의 완성된다는 감정뇌 덕분에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산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

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표현방법은 미숙하다. 감정조절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느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야 한다. 특히 감정 가운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제 맘(감정)대로 표현해서 남의 맘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결국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된다. 맘대로 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다.

아이가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내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기분 나빠서’, ‘그냥.. 싫어서’, ‘그냥’이 나오지 않는다. 감정은 다양하게 느끼되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마음의 틀이 제대로 잡힌다. 감정도 습관이다. 욕하는 표현이 습관이 되면 아이 마음의 틀도 욕으로 패턴화된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표현하며,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정교육이다.

감정교육 1단계 : 긍정적 감정에 공감하라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다. 감정교육 어떻게 할까? 아이가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자칫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감정교육의 제 1단계는 웃고, 박수치고 발 구르며 신나고 즐거워할 때 어른들은 아이의 감정에 동감하고 교감하는 것이다.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하면 긍정 습관이 형성된다. 기쁜 일에 공감하는 것 역시 부모와 교사의 피드백 공감 표현이다.

“어머, 선생님도 기뻐.”

“네가 기분 좋으니까 선생님도 정말 기분 좋아지네.”

아이의 긍정적 감정은 그냥 넘어가고,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 크게 반응했다면 이제 아이의 기쁨, 즐거움, 감동을 맘껏 함께해 주자. 아이 감정교육의 첫 번째는 긍정적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공감하고 적극 표현해주는 것이다.

감정교육 2단계 : 부정적 감정을 알아줘라(안아줘라)

문제는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것이다. 아이들의 짜증, 분노, 과격한 표현 등에 이성적이 되기란 어렵다. 부모는 이렇게 반응하기 쉽다. ‘징거리지 말고 말로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이라면 어떨까? ‘재는 왜 매번 저럴까?’, ‘부모의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나?’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는 어떻게 감정교육을 해야 할까?

아이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때는 우선 아이의 그 감정을 알아주자. 훈육과 훈계는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이유는 뇌 발달 때문이다. 아이가 감정적일 때는 변연계가 활성화되고 이성뇌(전두엽)에 접근하는 훈계는 전달되지 않는다. 감정을 먼저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하면 폭발적 감정이 진정되어 그 다음 이성뇌가 가동되어 교사의 말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것이다. “화가 났구나.” “속상해서 발로 걷어차구나.” “속상해서 욕했어?”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자. 때로 가슴이 맞닿도록 꼭 안아주어도 진정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한 다음 알맞은 감정표현을 알려주자.

감정교육 3단계 : 공감한 후 바른 감정 표현을 알려줘라

먼저 “그래, 속상해서 욕했구나.”하며 감정을 알아주고, 두 번째 감정 표현의 대안을 제시한다. “속상할 때 거친 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준다. 세 번째, 아이와 선생님이 찾은 대안을 확인한다. “앞으로 속상할 땐, 손뼉을 세계 세 번 친다는 거지? 그럼 그동안 거친 감정이 차분해지겠네. 선생님도 해봐야겠다. 선생님도 화나고 속상할 때 있거든”하며 아이의 대안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표현방법은 미숙하다. 감정조절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느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에 공감하고 격려한다.

감정 표현은 마음의 틀을 보여주는 것이다. 뒤틀린 창문틀로는 온전한 세상을 볼 수 없듯 아이의 마음이 뒤틀리면 온전한 세상도 왜곡시킨다. 아이의 감정은 풍부할수록 좋지만 감정 표현은 잘 다듬을수록 빛난다. 감정 표현은 성격이 되고, 인격으로 완성되어 아이를 품격 있는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는 ‘학폭’과 ‘언폭’이 있을 리 없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타인조망능력을 키우는 감정교육,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는 이유다. ㉠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부모교육전문가, 소통전문가로 활발하게 강연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왜 아이와 말할 때 화가 날까?』 『엄마라서 행복해, 내 아이라서 고마워』 『큰소리내지 않고 우아하게 아들키우기』 등이 있다. EBS <부모> MBC <여성토론 위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마당> 등에 부모교육, 아빠교육, 조부모교육 전문가로 출연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자격 연수 특강, 중고생 인성교육, <가해자 학생 부모교육> 등 부모교육과 조부모 교육, 교사교육으로 전국 강연을 펼치고 있다.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교실 속 실천

글. 이지영 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제 감정은 더 이상 참고 억눌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감정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 TV에서 힘들어하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이제부터 감정을 표현하고 사세요.”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과연 맞는 말일까? 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

민준이는 친구 지후가 한 말에 화가 났다. 민준이는 쉬는 시간에 지후에게 가서 다짜고짜 화를 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진짜 기분 나쁘거든.” 지후는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민준이의 공격적인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났다. “내가 너에게 뭘 어쨌는데. 친구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민준이는 지후에게 화난 감정을 표현했지만, 시원하기는 커녕 더욱 화가 났고 지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말았다. 서윤이는 담임선생님이 자신에게만 자꾸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화가 났다. 그러나 차마 담임선생님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친구 다빈이가 하는 말에 짜증을 내고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신경질을 자꾸 냈다. 민준이와 서윤이는 자신의 힘든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감정 표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는 것은 서로 별개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는 데, 혼동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화를 내는 것’이다. 느낀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각자 선택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준다. 아무리 화가 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할지

라도, 자신이 받은 공격이 기여한 정도를 넘는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억울하다. 따라서 화를 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된다.

여기서 잠깐! 감정을 다루는 데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를 알고 가자. **먼저, 감정은 정보이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나 욕구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주는 정보를 파악하여 처한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만 주고 사라지는 희생적인 녀석이 결코 아니다. 발생한 감정은 오직 느끼고 충분히 표현되기를 원한다. 만약 느끼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표현되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며 한 맺힌 귀신처럼 주변을 맴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느끼고 표현해서 해소시켜줘.”라고 말이다. 따라서 발생한 감정을 없애고 싶다면, 그 감정을 느끼고 충분히 표현해야만 한다.

그런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표현하는 데는 상대방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유발한 사람에게 표현해야 해소된다고 생각하며, 매일 상대방에게 표현할 궁리만 할 뿐, 감정을 조절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해소하려 표현했다가 민준이와 서윤이처럼 오해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곤 한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안전한 대상(가까운 친구나 가족 등)에게 하거나, 안전한 상황(혼자 있는 방, 빈 교실, 공터 등)에서 하거나, 안전한 방식(글 쓰기 등)으로 해야 한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오리지널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시험을 망칠까봐 두려워 화를 내는 경우, 화를 아무리 표현해보았자 해소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감정인 두려움을 표현해야 해소된다. **둘째, 감정을 말로 명명하며 소리내 표현해야 한다.** 보통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토리를 얘기한다. 하지만, 이는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가 나! 화가 나!”, “미안해!”, “억울해!”라고 감정을 명명해서 표현해야 한다. **셋째, 감정에 집중하며 끝까지 따라 가야 한다.** 화가 나는 감정에 집중하며 계속 화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화난 감정이 사그라들고 미안한 감정과 같은 다른 감정이 떠오른다. 그러면 또 그 감정을 소리내 표현한다. 이렇게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고 시원하고 편안한 감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집중하며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감정 인형’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아이들에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질 때, 자신의 감정 인형에게 그 감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 때 감정 인형은 감정을 들어주는 안전한 대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유발한 상대방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부모나 친구 등 불편한 감정의 상대방이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실 장면에서 종이에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여 휴지통에 찢어 버리는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 밖에 샌드백 때리기, 신문지 찢기, 그림이나 찰흙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감정 해소의 대안적 방식으로 사용해볼 수 있다. 단, 해소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억눌린 감정이나 충동에 집중하며 밖으로 꺼내어 분출하는 의식을 하듯 해야 한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3단계

만약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면, 두 가지 사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해



소해야 한다. 해소하지 않은 채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면,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 얼굴표정과 태도로 전달되면서 상대방은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감정을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보자. **1단계,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생긴다. **2단계,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전달한다.** 이 때 어떤 자극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를 주어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너’를 주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는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어 방어부터 한다. **3단계,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달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네가 요새 너무 바빠서 나와서 약속을 깜빡 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1단계). 그런데 네가 약속을 자주 잊는 것이 나와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라 생각되어서 나는 서운해(2단계). 앞으로는 약속을 조금만 더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3단계).”라고 말이다.

이제부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 ㉞



이지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자 심리상담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위원장, 한국임상심리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상담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정서조절코칭센터, 정서조절코칭 연구소 등에서 정서조절코칭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어린이 심리스쿨』(아울북), 『정서조절코칭북: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라』(시그마프레스), 『생각이 크는 인문학: 감정』(윌파소), 『나는 왜 감정에 서툴까』(청림) 등 다수가 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는 문해교육을 통해 배움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으며, 일반 성인에게는 다양한 교양, 시사 강좌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들여다봤다.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100세 시대, 60세 지금이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대구내일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나, 대구지역에는 성인 24만 9,968명(초졸미만 6만 8,600명, 중졸미만 18만 1,368명)이 초·중학 학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 초등과정을, 2013년에 중학과정을 설치하였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초·중학과정 모두 각 3년 과정이나, 대구내일학교는 입학 시 진입진단평가를 시행하여 초등 1년, 중학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내일학교 초등과정은 5교 6반으로 재학생은 123명이며, 중학과정은 1교 10반으로 재학생은 283명이다. 학습자 평균연령은 초등과정은 68세, 중학과정은 66세로 60대 이상이 81%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647명(초524명, 중123명)이다. 특히,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



영함으로써, 학교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타 지역에 비해 철저한 학습자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문해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과학 등 교과수업 이외에도 인문토론, 악기 연주, 컴퓨터 기초, 건강교육, 소풍, 체육체험, 가족골든벨, 졸업식화전 등 일반 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만학도들이 늦게나마 학교를 다니는 즐거움과 긍지를 갖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인문학 대중화 위해 '길 위의 인문학' 운영

부산중앙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인문·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운영 중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013년 선정된 후 올해까지 4차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의 골목 근대 100년을 품다'라는 큰 주제 아래 3차에 걸쳐 시민 100여 명이 부산지역 역사 강연에 참가하고 직접 탐방에 나서 우리 근현대사 속 부산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난 6월 실시한 1차 프로그램은 '영도의 숨겨진 인물, 역사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반도 주변 열강의 역사와 우리민족의 치열한



삶의 질곡이 겹겹이 쌓여있는 영도에 관한 강연과 해변길 탐방으로 진행됐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2차 프로그램 '이바구 골목에서 만나는 예술의 향기'는 초량 이바구길 탐방을 통해 이바구길의 어제를 살피고 내일을 열어가야 할 시간을 갖는다.

3차 '옛 그림으로 만나는 부산이

아기'는 조선통신사역사관과 매죽지골목 등을 돌아본다.

또한 강연과 탐방 후 참여자 전원이 함께 하여 '부산의 미래 100년을 여는 시민 인문학자'라는 주제로 부산에 대해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가질 예정이다.

김상식 관장은 "이 사업으로 부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고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으로 배우는 기쁨을 이어간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00세 시대, 배우는 기쁨을 이어 가고 있는 경남 도내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올해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및 3단계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학습자 관리 실태, 교육과정 및 평가 관리실태 등 6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관별 어려움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남 도내에는 학력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13개 기관(8개 설치, 5개 지정)에서 30학급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3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인문해 학력인정 중학과정 '대전평생교육대학'



대전평생학습관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형태의 중학 3년 과정인 '대전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총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정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3년 과정을 마친 학습자에게는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현재 6학급 132명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법정 이수시간인 단계별 연간 40주 45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수과목 5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과 선택과목(음악·컴퓨터·한문),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19명의 문해 교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등 문해교육과정은 지자체별 복지관 및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학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적어 공공생활과 경제활동 및 복잡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청남대 현장체험학습과 한밭교육박물관의 옛 교실 체험, 시화전 실시 등 상·하반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대전광역시매세터와의 MOU체결로 치매 관련 특강을 진행하는 등 학습자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기본적인 문해교육을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으로 단순 중학과정 학력인정을 넘어 고등과정으로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늦깎이 학생들, 글쓰는 즐거움에 빠지다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7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동화랑 한글』 프로그램을 5월 8일(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여 기초자치단체(연수구청)와 연계, 국고와 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문해 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실현과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기초학습권 보장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는 11월 17일(금)까지 운영되는 『동화랑 한글』 프로그램은 30명의 60세 이상 비문해 학습자들에게 개정 초등과정 2단계(초등 3~4학년 수준) 성인문해 교과서로 진행한다. 성인문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반복적인 주입식 교육방법보다는 과학적인 한글원리를 풀어서 수업하고 있다.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능력을 포함한 수학영역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보완하였으며, 학습자의 자아실현 및 생활적응력을 접목하여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3회 문해학습자(초등과정) 편지쓰기대회 공모 문해2단계(1,966점 작품 중 329명 수상) 부문에 참가하여 장려상과 늘배움상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3개의 거점 평생학습관에서 만나는 평생교육

충청남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3개 권역(북부, 남부, 서부) 거점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부권역(천안·아산·공주지역)에서는 금빛 및 학부모봉사단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멘사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 「충남재능나눔평생교육봉사단(147명)은 충남지역(14개 시·군) 학교,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배려와 나눔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남부권역(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회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손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특수학급,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 지리적으로 소



외된 환경에 처한 교육 수요자를 발굴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 및 단체뿐만 아니라 공동된 주제의 학습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모임에 「배달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부권역(서산·보령·당진·홍성·예산·

태안지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웹툰창작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웹툰 작가와 함께 태블릿을 사용하여 만화그리기, 캐릭터 디자인 만들기 등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웹툰창작교육은 문화소외지역일 수 있는 서부권역에서 청소년 동아리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에도 2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웹툰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 평생교육을 통한 따뜻한 학교공동체 구축

지난 6월 13일 화요일 미력초등학교(교장 김미애) 도서관에서는 학부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상호신뢰,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족공예 체험이 실시되었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님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공예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농번기로 바쁜 학부모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전화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후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학부모들을 맞이하였다.

먼저, 준비된 파우치 디자인을 가족에 옮겨 자르는 과정부터 공예 체험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아직은 서툰 분들도 계셨지만, 서로가 조금씩 도와가며 가족에 물을 뿌리고, 학교 외부 공간인 창고 앞을 활용해 문양의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개성에 맞



는 색칠을 하였다.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오신 분과 3개월이 된 영아와 처음 바깥나들이라는 모험을 감행하신 분도 계셔서, 도서관에서는 때 아닌 뽀로로 동영상도 상영되었고, 수업을 마친 엄마 선생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색감의

가족에 지퍼를 붙이고, 펀치로 바느질 구멍을 뚫어 초실을 이용해 꿰매는 과정을 거칠 때쯤 아기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이 들었다. 끝으로, 옆 부분 날개를 오려 붙여 고정시키고 나만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가족 패션쇼를 열었다. 김미애 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의 담장을 낮추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한 것 같아 미력초가 더욱 따뜻한 학교공동체로 거듭난 것 같다고 말했다. ㉠



영국에서의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영국에서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서비스로 출발한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머힐(Summerhill), 스타이너 스쿨(Steiner School) 등 대안학교 제도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 들어서서 매년 늘어나는 무단결석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였고, 교육복지서비스가 교육법과 학교 출석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교육복지서비스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를 고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출석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출석을 권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 가운데 최근 들어 자살충동, 학교폭력, 음주, 청소년 범죄, 성문화, 사이버폭력, 우울증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매년 급증

영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평가의 일환으로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학교평가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담당할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거나 자원봉사자인 학교 상담사를 두는 경우가 있다. 자원봉사 학교 상담사는 자선단체에서 기초적 상담, 치료적 놀이치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상담의 이론과 실제 등의 훈련을 받은 뒤에 학교 상담사로 근무하고, 소속 단체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

전국학교장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NAHT)의 학교장들은 정신건강 상 우려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사가 업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원 서비스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6%인 학교 절반이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렵다고 답하였다.

2016년 아동국(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에서는 학생들이 병원보다는 학교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 아동국은 2015년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국의 아동들 중 28%가 전문적



2018년에 영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연수가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2019년에 연수가 제공된다.

치료를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겪는 아동들 중 13%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보장된 아동들이라도 평균 100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부장관은 전국적으로 학급당 3명의 아동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이들 중 25%만 도움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2015년에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는 5명 중 2명도 안 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39%라는 통계를 들어 교사들에 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 초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모든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정신건강 연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²⁾ 헛트 장관은 총리의 이번 발표를 통해 학교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추가 연수는 아동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8년에 영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연수가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2019년에 연수가 제공된다.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정부가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 자선단체인 ‘The Place to Be’는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연수와 학교 상담사 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초등학교에 상담자를 배치하자는 운동은 1995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뒤 매년 확장하여 2016년에는 92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57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및 거식증 지지 웹사이트의 위험성, 신체와 정신의 질병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국민의료보험(NHS)의 목표 설정, 불안·우울과 같은 증상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개인·사회·보건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비 등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란 상담서비스를 전담할 ‘학교 상담사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②

1)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6.1.6.)

2) <https://www.tes.com/news/school-news/breaking-news> (2017.1.9.)

칭찬 대신 격려로 시작하는 2학기 학급운영

‘번아웃 현상’이란 간호사들에게 나타나는 과로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와 함께 가장 많은 번아웃 현상을 겪고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합니다. 둘 다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무조건적인 헌신성을 요청받는 데다 아이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충분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돌아온 아이들과의 2학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개학을 하면, 무엇보다 아이들의 2학기 기대치는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한 후, 회의를 통해 2학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학급규칙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여 학급 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문제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1학기와 달리 이미 학급 구성원의 면면이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 2학기 학급운영의 장점입니다. 긍정적 영향력이 큰 아이, 각종 영역에서 다양한 재주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개개인의 특징과 장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2학기 학급운영의 키가 됩니다. 특히, 모둠을 재편하거나 활동을 구성할 때 각각의 특성이 잘 살아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꼭 모둠이 아니라도 이들을 적절한 상황에 활용하면 학급운영에 생기가 넘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칭찬과 격려하기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양육을 비롯한 타인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OO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네!”

『미움받을 용기』란 책에서 철학자가 젊은이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OO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아들러와 그 수제자 드라이 커스는 아이들의 문제행동 뒤에는 숨은 ‘목적’이 있는데 그 5가지 문제행동의 패턴 중 첫 단계를 바로 ‘OO 요구’라고 보았습니다. OO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요구’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아이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벌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부적절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생활양식을 익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커닝을 하거나 거짓된 일을 꾸미는 등의 부정행위에 나서는 것도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칭찬을 ‘능력이 우월한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실에서 심부름한 아이에게 교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넌 정말 심부름을 잘한다.” “심부름은 OO이가 최고야.”

라고 길들이는 대신, 아이를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칭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OO야, 심부름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연구소 소장님의 조카아이는 미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미국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한국 선생님은 자주 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넌 정말 예뻐,” “넌 정말 똑똑해,” “넌 정말 최고야,” “넌 정말

칭찬(능력칭찬)	격려(노력칭찬)
“넌 정말 최고야.”	“선생님 심부름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넌 항상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네가 시간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기쁘구나.”
“우리 반에서 또 일등을 했다니 넌 정말 똑똑해.”	“네가 이번 시험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게 보여 뿌듯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공부를 진정으로 즐기는 것 같아 보기 좋단다.”
“너만큼 도움되는 아이는 없을거야.”	“네가 정리를 해서 그전지 책상이 굉장히 깨끗해졌구나. 고마와.”

착하구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칭찬의 문제는 칭찬이 아이 자체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남들보다 낫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는 이런 말투에 남들보다 더 나올 때에만 자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칭찬, 즉 격려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행동 내레이션으로 칭찬의 고수되기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의 칭찬 태도를 통해 선생님이 칭찬의 하수, 중수, 고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책상 위에 “수학 책을 꺼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하수라면 지시대로 하지 않는 아이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책을 꺼내지 않은 아이들에게 찾아가 “책 꺼내라고 벌써 몇 번째 이야기했니?”라고 화를 내며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중수라면, 지시대로 따른 모둠 아이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2모둠과 3모둠은 벌써 수학 책을 모두 꺼냈습니다. 2, 3모둠에게 칭찬의 박수를 쳐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한 모둠에게 집중하며 사탕이라도 하나 건넬 경우, 칭찬받지 못한 모둠에서는 “너 때문에 우리 모둠 사탕 못 받았잖아.”라며 누군가를 질책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칭찬 방법이 낡은 부작용 이니 이러한 다툼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칭찬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칭찬하되 칭찬하지 않는 특별한 방법’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바로 ‘행동 내레이션’을 활용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동 내레이션을 활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2초 규칙 : 지시를 전달한 후 2초 내에 지시대로 하는

학생의 행동을 내레이션합니다.

둘째, 2~3명의 학생 행동 묘사하기 : 지시에 순응하는 2~3명의 학생 행동을 묘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책을 꺼내세요.”라고 지시했다면, 2초 안에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2모둠과 3모둠은 수학 책을 꺼냈습니다. 4모둠은 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비폭력대화의 첫 부분에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이다.’라는 인도 작가 크리슈나무르티의 글이 나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되려면, 평가가 아닌 관찰로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자꾸만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이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특별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떤 ‘착한 행동’을 했을 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사소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순 없지만, 존중할 순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큐브나 유희왕 카드를 가져왔을 때, 혹시 큐브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주목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 속의 친절과 공감이 2학기 우리 반을 더욱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급공동체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다른 친구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다
궁금해~

생애 첫 노동 경험, 청소년 '알바'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대폭 늘다. 고용노동부 자료(2015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22만 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까?

알바는 왜 하나?

부모들이 용돈을 넉넉히 주지 않을 때 아르바이트가 시작된다. 그다음 이유는 직접 세상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싶은 독립심이고, 마지막 이유는 마음에 맞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월급식의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형편이 어려우면 못 주는 달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책 뒷장에 버스비, 점심식사비, 참고서 구입비를 계산해 보고 모자라는 돈은 아르바이트로 메꿀 생각을 한다. 부모가 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용돈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친구들과 교재비다. 대략 1개월에 3~5만 원이 필요하고, 또래 집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물건(핸드폰, 운동화, 가방, 점퍼, 화장품, 콘택트렌즈 등)을 사는 것도 포함된다. 남학생들의 경우 '게임기를 사고 싶지만 엄마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서' 혹은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 기념일을 챙길 돈이 필요해서'처럼 특별한 사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엄격하게 금지하면 못하는 수밖에.

알바는 어떻게 하나?

평소 알고 다니던 동네 가게에 붙은 구인광고를 보거나(이건 주로 햄버거, 피자, 치킨 같은 3대 음식점이고 그 외 아이스크림 매장, 중국집 배달 등이다), 선배나 친구가 물려주거나 소개해주는 곳에(이건 웨딩홀 서비스나 음식점 홀 서빙, 주유소 견맨이다) 들어간다. 인맥을 동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체 사장님과 전화나 카톡으로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일하러 간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전단지 돌리기(시급 7천 원, 힘들기도 제일 힘들다)고, 그다음으로는 음식점 서빙이나 오토바이 배달(시급 7~8천 원), 편의점(최저시급이고 6천 원이나 이하로 제일 적게 준다), 대형매장 카트 정리(시급 7천 원), PC방이나 당구장(시급 7천 원), 카페(시급 7~8천 원)의 순서다. 남학생의 경우 소위 노가다로 불리는 일용노동자나 택배 분류원을 하기도 하는데, 둘 다 일당 8만 원이다. 힘이 들어서 금액이 센 편이다. 그 외 컴퓨터 게임교수가 오버워치 게임을 가르쳐 주고 1인당 22~40만 원을 받는 것 같은 독특한 아르바이트도 있고, 인터넷에서 하는 설문조사(1건당 500원~2천 원, 시간은 5분~30분)에 응답해주고, 적립금을 현금으로 바꿔서 1개월에 10~20만 원 정도 벌어서

기성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순종심이 강하고 법을 모르고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손쉽게 대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올바르게 일하도록 이끌어 줘야 할 책무가 있는 게 아닐까?

쓰는 재택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토요일 웨딩홀 서빙으로 9시간 일하고 일요일 오전 오후에 전단지 돌리면 1개월에 30~40만 원을 벌 수 있다. 만약 방학을 맞이해서 맥000(이런 곳은 분 단위로 시급을 계산해주고 체불하지도 않아서 인기가 높다)에서 30일을 근무하면 125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알바의 성과 암

생계형이든 용돈추구형이든 자기계발형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는다는 점이 제일 좋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어른처럼 씹씹이가 크지 않아서 수십만 원의 소액(?)으로도 매우 기뻐하며 감사한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업주를 만나면 시급도 제때에 받고 휴식 시간이나 인간적 대우도 받지만, 나쁜 업주를 만나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에서 10%를 떼고, 세금이 나왔다고 좀 더 떼고, 30일을 못 채웠다고 더 떼서), 욕설이나 폭력, 또는 성희롱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기도 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주가 아이들에게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등학생쯤 되면 그냥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략 1/4쯤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고, 항의도 못 하고 사건들이 그냥 묻힌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돈을 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대해 생생한 체험을 함으로써 좀 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한 마디로 한결 어른스러워지고, 알아서 하는 면이 늘어난다. 반면에 공부할 시간을 빼기고, 목돈 때문에 낭비벽이 생기기도 하고, 성인들이 드나드는 매장에서 일하다가 술·담배, 이성교제, 심지어 학교 밖의 좋지 못한 사람들과 사귀면서 비행이나 범죄에 말려드는 일이 생긴다.

사실 아이들은 세상에 갓 불러 나온 어린양 같고, 보호 받아야 할 존재다. 기성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순종심이 강하고 법을 모르고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손쉽게 대하기보다, 마치 자신의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올바르게 일하도록 이끌어 줘야 할 책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번 여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수많은 우리 아이들, 부디 건강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오기를! ②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농촌체험

무덥지만 신나는 여름방학이 있어 기분이 좋은 이 계절 시원한 계곡을 따라 산으로 바다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색다르게 여름방학을 즐기고 싶다면 농촌체험은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농촌체험을 소개합니다.

버스로 떠나는 농촌여행,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여행과 동행을 테마로 하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큼니다. 온 국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농업·농촌 확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해피버스데이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경험과 공감확대 △소비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귀농, 창농을 지원하는 지식공동체의 창출에 그 방향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진행된 해피버스데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농촌을 즐기며 체험해 볼 수 있는 신개념의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20회와 오피니언리더 대상으로 4회의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현재는 17회차 프로그램 진행기준 438명이 참여하고, 총 40회차 프로그램 기준으로 1,200명의 참여인원을 예상한다고 하니 명실상부 최고의 대국민 6차 산업 현장과 선진농가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기농 라이프 등 체험농장으로 인기

그렇다면 해피버스데이의 호응이 좋았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살펴보면, 유기농 라이프의 진수를 보여 준 6차 산업의 체험 농장인 대가농원과 깨끗한 우유를 만드는 진주목장,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지닌 인량리 전통 테마 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농장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가농원은 유기농산물 재배(1차), 딸기잼, 아이스크림 등 가공(2차), 농촌체험프로그램(3차)을 운영하는 6차 산업의 체험농장으로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정약용 유적지를 탐방하고 딸기 및 도라지 수확 등에 참여해 보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진주목장에서 원유생산(1차),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 가공(2차), 낙농체험프로그램(3차)을 운영하는 6차 산업의 체험목장으로 소와 송아지 먹이주기, 젖소 우유짜기,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해피버스데이는농촌의이미지변화와다원적인가치를공유하고단순체험이아닌농가의매출증대와더불어농촌관광을활성화하는등의도시와농촌이상생하며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6차산업발달의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습니다.

1만 원으로 농촌의 매력을 느끼다

지난 6월 30일, 충남 당진 올미마을의 ‘할매들의 반란’이라는 해피버스데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즐기고 이해하기 좋은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이고, 매력적인 체험활동 등으로



대가농원 딸기 수확하기



진주목장 치즈 만들기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고 덧붙여 “활동이 실 틈을 안줘요. 내실 있게 짜인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라며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과 체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등 꾸준한 소통의 노력이 해피버스데이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피버스데이의 참여방법을 알아볼까요?

Q&A

Q 해피버스데이는 언제 참여할 수 있나요?

A 해피버스데이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Q 해피버스데이의 참여비용은 얼마인가요?

A 해피버스데이는 성인은 1만 원,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5천 원입니다.

Q 해피버스데이의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피버스데이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busday_epis)에 접속합니다. “알려준 DAY”를 클릭 후 월별 체험자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월별 체험자 공고를 들어간 후 월별 체험지 소개를 읽어보고 가고 싶은 체험지 기준으로 체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및 사연을 작성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해피버스데이 참가자들



표. 2017 해피버스데이 일정

일자	요일	지역	체험지
주요 체험 프로그램			
8/4	금	전남 곡성	가정체험마을
기차마을 체험, 인절미 만들기			
8/18	목	경북 의성	지당들
마늘 감말랭이 장아찌 만들기, 마늘껍질 손거울 만들기 등			
8/25	금	경기 양평	질울고래실마을
논밭장 물놀이, 메기 잡기			
8/26	토	경기 양주	천생연분마을
연잎 밥 만들기, 족대뉘시와 물놀이			
9/1	금	세종시	뒤옹박고을
두부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민속놀이			
9/8	금	충남 예산	은성농원 /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사과 수확, 사과와이너리 투어, 슬로푸드 요리체험			
9/9	토	강원 횡성	꿈꾸는 풍덩이
수세미를 활용한 비누와 샴푸 만들기, 산야초 음식 만들기			
9/15	금	강원 홍천	배바위카누마을
카누와 카약 타기, 맨손 물고기 잡기			
9/22	금	경북 경산	바람햇살농장
대추 수확, 한옥체험관, 활쏘기			
9/23	토	경북 영천	영천와인사업단
와이너리 견학, 포도 따기, 와인시음			
10/12	목	전남 담양	무월마을
천연염색, 한과와 대롱밥 만들기			
10/13	금	전북 진안	애농 영농조합법인
새싹कु키, 아채잼, 카레 등 가공품 생산			
10/19	목	경기 파주	산머루농원
산머루 와인과 잼 만들기, 와인 및 음료 시음			
10/20	금	경기 연천	새동지마을
고추 수확, 김치 담그기, 우리 콩 두부 만들기			
10/28	토	경북 안동	보화마을
유기농 국화 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11/3	금	경기 안성	꽃빛농원
야생화 화분 만들기, 야생차 만들기			
11/10	금	경남 창원	빛돌배기마을
एको투어, 단감과 고구마 수확, 요리 체험			
11/18	토	강원 춘천	원평팜스테이마을
김장 담그기, 메주 만들기, 돼지등갈비 바베큐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Q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한국사 관련 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18년 1월 1일부터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수원에서 실시한 한국사 관련 연수 60시간 이상의 이수증 사본 등 공증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사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은 시·도교육청 연수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Q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초·중등 국·검정 교과서는 해당 출판사를 확인하여 문의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정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www.ktbook.com)의 ‘교과서구입’ 메뉴에서 해당 검정교과서를 조회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교과서판매서점’ 메뉴에서 인근 서점의 재고를 확인 후 방문 구입도 가능합니다.

Q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유형

구분	학교	거주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입학하고 졸업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함
유형(Ⅱ)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입학하고 졸업하여야 함. 즉, 학령기 12년 동안 농어촌 소재지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함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땀과 희망으로 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실>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름마다 찾아오는 저녁 도보 행진

매년 여름이면 숲길을 걷는 프로그램이 나흘 연속해서 진행된다. 'Avond4daagse (아본트 피어 다흐서)'라고 하는 이 도보 행진은 4.5유로(원화 약 6천 원)의 등록비를 내고 참가하게 되는데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의무다.

1909년에 네덜란드에 소개되어 1940년에 첫 행사가 개최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이 되었다가 부활했다고 한다. 5km와 10km 코스로 나뉘어 있고 초등학생들은 보통 5km 코스를 선택한다. 이 도보 행진 행사의 취지는 친구들과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름으



로써 더욱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는 것이다.

나흘째 되는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관악대의 연주와 함께 퍼레이드를 하고 메달을 받게 되는데 메달에는 행사의 참여 횟수를 보여주는 숫자가 천공(穿孔)되어 있다. 그동안 수고한 자녀들에게 부모는 꽃다발을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매일 저녁 2시간씩 걷고 아침에는 제시간에 등교해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은 힘든 일정이지만 커다란 성취감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글. 박소영 명예기자(네덜란드 거주)

우리 청소년들 할 수 있어! '청소년위캔센터'



도시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갈 곳도, 친구들하고 어울릴만한 장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하지만 대전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나래를 펼치는 공간, '청소년위캔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먼저 센터 앞마당은 매우 넓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날에도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하였고, 이들 청소년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위캔센터 내부에는 훨씬 많은 시설과 고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장, 탁구장 등 운동시설,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관, 여러 가지 공연을 펼치는 대강당 등과 함께 암벽 등반·헬스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이 꿈과 나래를 펼치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글_ 손성섭 명예기자(충북대 교직원)

학교 민주주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지난 7월 6일 수원중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학생 대표 33명과 전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공감 교육공동체 대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학교 구성원이 교육공동체로서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니고 학교 현안이나 교육적 논의 사항을 함께 의사소통 하는 자리이다.

이날 대토론회의 토론 주제는 크게 2가지로 상정되었으며, 토론의 단위는 학생, 교사로 구성된 총 6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분임별 논의의 진행은 교사가 이끌고, 대부분의 의견 개진과 합의 도출 등의 과정은 학생이 주축이 되어 운영된 점과 학교 현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학생자치회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기반으로 학교 단위에서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민주시민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글_ 김지혜 명예기자(수원중초 교사)

안전한 급식, 행복한 학교 만들어요!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령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징계요구, 지도·

권장사항 중 지적사항을 점검표에 기록하고, 차기 평가 시 이행여부 확인이 이루어진다.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 학교급식점검단(급식점검단 교육을 받은 학부모(급식소위원회 위원), 영양사 등)를 이뤄 각 지원청 공무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글_ 백희 명예기자(학부모)

건강한 학교 급식으로 인기 만점



광주백운초등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누룽지 등 건강한 학교 급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현진 영양사 선생님은 학교 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코자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식품과 우수 농산물인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염분·유지·단순당·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 방향을 세워 학교급식에서는 트랜스지방 등 유해식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당·나트륨 섭취 저감화와 학교 급식 영양표시제도 시행하고 있다.

검수는 34명의 학부모를 급식 모니터단으로 구성하고,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학부모) 4명, 모니터단 3명, 간사(영양교사) 1명 등 총 8명으로 운영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글_ 김미경 명예기자(광주상일중 영양사)

대전의 유명인사 ‘봉사하는 삼남매’



대전에서 봉사활동 잘하기로 유명한 삼남매 가족이 있어 소개합니다.

김도연(동대전중 2학년) 군,
김호연(동대전초 6학년) 군,

김하연(동대전초 2학년) 양.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 임재은 학부모가 그 주인공이세요.

이 삼남매는 어머니인 임재은 학부모를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아이들로 유명합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 일요일에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설거지나 음식 재료를 나르는 일을 하는 참으로 기특한 삼남매인데요.

이번에 건우라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대전에도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걸립되기를 희망하는 기적의 마라톤에 참석해서 그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글_ 서영식 명예기자(국제교육문화신문사 대전지부장)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



제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BIKY)가 지난 7월 12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하였다.

제12회 BIKY는 끼와 개성이 넘치는 아역배우들이 직접 사회를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초청작품과 어린이, 청소년 제작 영화가 상영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다.

올해 42개국 173편의 영화가 초청되어 제12회 BIKY에 상영되었으며,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단위 관객들이 찾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나도 성우다’와 ‘시네마 스포츠’ 등 다양한 무대행사도 영화제 기간 중 마련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화관련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와 연계한 영화교육 및 제작 프로그램을 글로벌 규모로 확산한 ‘부산 청소년 영화캠프’도 아시아영화학교에서 동시 개최해 영화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글_ 박은희 명예기자(레인보우 희망재단)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



7월 7일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 전국 작은 학교 포럼’이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행사는 국회 교육희망포럼(대표 안민석 국회의원)과 강원교육희망재단(이사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주관했고, 강원·전북 등 7개 교육청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다.

교사, 정치인, 농어촌지역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날 포럼에 참석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는 작은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작은 학교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현장 교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병성 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글_ 김재윤 명예기자(대학생)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꿈꿔요!



시골의 조용한 특수학교 강당이 오랜만에 시끌벅적하다. 멀리 부산에서 온 공연팀은 무대와 음향을 정비하고 리허설에

집중한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열리고 학생들은 무대를 향해 큰 함성으로 공연팀을 맞이한다.

평소 소극장 체험이 쉽지 않은 장애학생들을 위해 청암학교 교사들은 SNS를 통해 소년조선일보에 공연을 응모하였고, 당첨이 되는 행운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공연이 이날 시작될 것이다. 극단 디아코노스는 학교폭력을 우정으로 극복하는 감동의 장면을 청암학교 학생들에게 선사하였다. 평소 장시간 집중이 어렵던 학생들도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며 감상하였다.

글_ 김만규 명예기자(청암학교 교사)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엄마-아빠 성교육'



“오늘 연수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좋은 연수를 해 주신 보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부모 성교육 참여자

의 소감 글을 보여주는 파주 문발초 임미영 보건교사의 얼굴에는 학부모와 같이 공감했던 학부모 성교육 연수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발초에서 '엄마와 아빠를 위한 성교육'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3층에 위치한 보건교육실에서 아이들의 자리에 앉아 이름표도 달고 반장을 뺀고 장난을 치면서 학창시절로 돌아간 2시간의 연수. 학부모들은 함께 웃고 때론 친구의 성장스토리를 들으며 눈물지었다.

'수정에서 착상까지 과정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스토리를 추억하는 시간도 되었다.

글_ 천아영(원종초 보건교사)

행복 만남,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네트워크



이상훈 성남문화재단 부장

기고 현재까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구체화하여 지속하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학교는 마을을 모르고, 마을은 학교를 모르고... 그런 가운데 학생은 학교와 학원, 동네를 오가며 배움과 생활이 분리되는 불행에 갇혀진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5년 성남교육지원청, 성남문화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이 MOU를 체결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수업을 열고 교사들이 참여하고, 성남문화재단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을 열고 강사들이 참여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시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까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시행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3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감사의 마음을 나누면서 기관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취재_ 강호섭 명예기자(보정초 교육행정사)

2017 청소년 보훈캠프, 나라사랑 되새기다!



대한민국 나라사랑교육연구회(회장 송장섭)는 2017년 7월 8일부터 9일까지 코레일 인재개발원과 서울, 파주 일원에서 청소년 보훈캠프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2017 청소년 보훈캠프에 80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했는데, 보훈교육연구원을 출발하여 임진각과 제3땅굴, 도라산역을 둘러보고 백범 기념관에 도착하여 백범 묘를 참배했다.

장석홍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의 독립정신 함양과 실천을 위한 토론이 있었고 조별로 깃발 그리기, 주제 토의 및 토론, 나라사랑 실천 방안과 나의 다짐, 소감문 쓰기와 발표회가 있었다. 이번 청소년 보훈캠프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대한민국 나라사랑교육연구회는 2016년 전국의 초·중등 교원으로 결성되어 교재 개발 및 청소년 보훈캠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글_ 조원표 명예기자(소안초 교사)

생활 속 '통찰'로 활기찬 인생 살자



지난 6월 21일 서울시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른성장 프로젝트 교육' 현장을 찾았다.

나무를 관찰하며 삶은 어떻게 살까? 이를 교육적 의미로 풀어내는 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최기준 강사는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왠지 모를 느낌을 받았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과 닮은 점도 많음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를 관찰하면서 정리하였던 내용을 스토리로 재구성하여 이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을 비롯해 자연 속에 존재하는 풀, 나무, 돌들을 허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글_ 한정광 명예기자(청소년지도사)

가족과 함께 하는 야구관람!



연지초등학교(교장 구경숙) 교육복지 23가족 110명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사직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 대 롯데(자이언츠) 야구경기를 관람하였다.

가족야구관람은 가족응집력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이 시행된 2011년 이후 6년간 큰 호응에 힘입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연지초등학교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체리데이블 사업으로 티켓 110매를 후원 받아 1루석에서 관람하게 되었다.

야구장 나들이가 처음인 가족이 많았으며, 티켓을 받고 입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야구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비닐봉지 응원도 하고 풍선을 흔들며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글_ 구영목 명예기자(어린이집 원장)

진로체험교육 미니 박람회 개최



고양시 청소년진로센터(이하 진로센터)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니 박람회를 지난 7월 5일 지도

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행사 관계자, 그리고 많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오픈 행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증강현실(AR)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받았다. 이날 박람회에 8개 분야(커피, 드론, 제과제빵, 과일 초밥 만들기, 경호호신술, 조향사, 제품디자이너, 소프트웨어개발)의 진로체험에 대하여 26개 학교 5학년 학생 136명이 참여하여 학생 1명이 3개 분야에 대해 직접 체험(1회 30분, 총 90분 3회)하였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미니 박람회는 앞으로 2회(10월, 11월 각 1회)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_ 이재찬 명예기자(특공무술인)

1만 동아리 대축제에 가다!



경북교육청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1만 동아리 육성 사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1만 동아리 대축제가 '내일의 나를 만나는 설레는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17,

18 양일간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구미컨벤션센터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모두 운영할 만큼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생들이 결과 보다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1일 학교를 비롯해 각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52개의 전시-체험도 준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드론 체험 장소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였고, 로봇 배틀, 랩 가요, 댄스 등 각종 경연대회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타 축제와는 차별화 되어 준비된 1만 동아리 대축제를 둘러보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행복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_ 하현우 명예기자(울진교 교사)

날배를 소개합니다



진주 개양중학교에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교사 모임이 있다. 날마다 배구와 날마다 배움이라는 의미의 '날배'라는 동아리다. 배구 실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른 배구 모임과 달리 '날배'는 체육활동을 매개로 하여 교사들이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써 한 몫을 하고 있다.

배구 네트를 가운데 두고 경기를 하는 동안 학생지도, 교수법, 자기계발 등에 관한 대화가 교사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가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교사상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개양중학교 교사들의 땀과 함께 성장해 온 일곱 살 '날배'는 이렇듯 교사들이 고민을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는 동아리로서의 역할을 넘어 학생 및 교직원과의 소통의 장으로서도 커나가고 있다. ㉠

글_ 강지영 명예기자(수필가)

제약·바이오 분야의 제품 인허가를 돕는 의약품인허가전문가

유전자치료제는 미국 등 각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꿈의 신약’으로 신약 개발의 판도라가 열릴 경우 의약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한 제약회사에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유전자치료제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때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와 허가를 내주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의약품 인허가전문가’이다. 즉 의약품인허가전문가는 의약품의 개발과 인허가, 생산, 마케팅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개발된

의약품의 인허가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효성과 더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서 정부의 관리를 위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을 파악하고 허가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허가와 관련한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제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약품인허가전문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인허가전문가는 의약품의 개발과 인허가, 생산, 마케팅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의약품인허가전문가가 하는 일

- ☑ 의약품인허가전문가는 의약품의 개발과 인허가, 생산, 마케팅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한다.
- ☑ 신약 등 품목 허가, 제품 도입 시 국내 허가 규정 설명, 임상 및 비임상 진행 컨설팅, 제품 광고 관련 규정 점검, 약가 사후관리,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등을 한다.
- ☑ 국내외 의약업계의 트렌드 및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 목표 설정과 각종 허가 규정에 적합한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한다.
- ☑ 제조에 대한 규정 준수, 제조관련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시법 관련 컨설팅, 품질 관련 규정 변경사항 주기적 공지 등을 담당한다.
- ☑ 연구 개발부터 보험약가 고시까지 일정 수립 및 관리, 개발 초기 경제성 여부 판단, 보험약가 정책 수립 및 적정 보험약가 제시 등을 담당한다.
- ☑ 각국의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파악하고 규정에 맞는 신청서류 작성 등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 신청 제품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www.kdra.or.kr

참고문헌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적합한 사람은?

의약품 개발 시 제품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분석력, 각종 허가 규정을 이해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있어 해외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된다.



필요한 자격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정부 및 민간에서 의약품인허가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취업 및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공부?

대학에서 약학, 의학, 생물학, 화학, 수의학 및 바이오 등 생명과학 분야를 전공하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 법학이나 경영학, 통계학 등도 의약품 인허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다.



활동 영역 및 진출 분야

의약품 관련 기업, 의약품연구소, 의약품 관련 기업의 전략기획자, 인허가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의약품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일한다.



전망 point

국가 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과 판매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의약품 인허가 과정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의약품인허가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종 받은 의약품인허가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 시장을 활동영역으로 하여 연구 개발 및 기획, 후보물질 개발, 글로벌 마케팅, 기술 사업화, 시판허가 등 의약품 관련 전반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대학 수시전형 준비노하우①

학생부위주전형, 면접 준비는 이렇게...

여름방학부터는 면접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서류 100' 전형이 늘면서 면접을 안 보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시모집 면접고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를 평가하는 '서류 기반 면접'과 눈술처럼 제시문이 주어지는 '제시문 활용 면접'이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대학이 서류 기반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학생부위주전형에서는 주로 지원자 1명에 입학사정관과 학과 교수 등 2~3명의 면접관이 평가하는 다대일 면접이 일반적이데 15분 내외가 소요된다. 다대일 면접은 여러 명으로부터 질문을 받기 때문에 긴장감과 압박감이 크다.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면접형, 고려대 고교추천 I, II 일반전형 등은 심층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과 더불어 대학이 요구하는 면접 유형을 대비해야 한다.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라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압박면접에는 일단 평가자의 말을 긍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YB 화법'(Yes~ But~)이 유용하다. 하지만 모의면접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부정적인 'NB 화법'(No~ Because~)을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평가자가 "화학 성적이 좋지 않네요?"라고 질문했다면, "네, 제가 화학 성적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한 뒤, "하지만 학교 화학 선택반이 한 반뿐이라 상위권 등급을 받는 게 어려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좋다. 평가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련된 화법이다.

면접 화법에서는 두괄식의 답변이 좋다. 너무 짧게 답변하기 보다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병렬식 나열형' 대답이 필요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답을 먼저 말하는 게 좋다. 지식을 측정하는 '설명형' 문제는 문제의 핵심을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거나 부연 설명한다. '의견 주장형' 문제는 주장을 정확하게 먼저 밝히고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양비론이나 절충형 대답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주장을 선택하든 평가자는 반대 의견에 서서 지원자의 논리를 공박할 것이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상대방 논리의 문제점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옹호해야 한다. 평가자의 공격에 쉽게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학생부위주전형 면접평가에서는 질문에 대한 정답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과정 중심적인 평가를 중시한다.

면접은 단계별 전형의 2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의



면접은 최종합격에 결정적인 선발요소이므로 충분한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말은 반복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면접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다.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일정배수의 학생들은 유의미한 실력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면접의 기본점수를 없애서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2단계 면접에서 서류의 진위여부,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진학의지를 파악한다. 성균관대(성균인재전형, 글로벌인재전형), 서강대(자기주도형, 일반형) 등의 대학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는다. 면접인원을 수용할 공간과 역량 있는 면접관의 부족 그리고 경쟁률 하락이 대학이 면접을 기피하는 이유다. 하지만 면접이 없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부에 짧게 기록된 내용 가운데 소명하고 강조할 내용을 보완하는 기능을 면접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담임 및 과목별 교사의 협업 팀티칭 필수

면접은 단기간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교사는 담임교사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담임교사와 과목별 교사의 협업과 팀티칭이 필수이다. 먼저 학생부-자기소개서-상담기록 등 학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학생과 자주 만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 뒤 모의면접을 통해 실전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들과 모의면접을 한 뒤에는 학생들도 면접관으로 참여시켜 연습을 하면 효율적이다. 모의면접 상황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드백을 해야 한다. 지도교사는 면접 뒤 말투, 용어 선택, 시선 처리, 자세 및 태도 등 학생의 약점을 몇 가지 지적하여 개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자연계 면접의 경우 수학·과학 관련 교과서 대단원·소단원 학습목표를 숙지하고, 학습활동 문제풀이를 하면 도움이 된다.

끝으로, 눈술은 1년 이상 준비하면서 면접은 시험 전 몇 주 정도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면접도 최종합격에 결정적인 선발요소이므로 충분한 연습 기간이 필요하다. 말은 반복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면접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다. 면접관들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읽은 뒤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가 있는 학생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대학이 면접을 통해서 뽑으려는 인재는 앞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다듬어지지 않은 숨은 원석이다. 따라서 늘변이라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면접관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지원자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면 된다. ㉠

* 학생부위주전형 자기소개서 작성노하우는 『행복한 교육』 3월호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아이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上)

영재발굴단을 촬영하다 보면 뛰어난 영재를 키워내는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뛰어난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어떻게 키운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 분들과 대화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깊이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살 때에는 피아노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선행시키고 과학도 영재고 보내야겠다는 식의 계획은 아예 없으신 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만 버리면 자녀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해외의 전문가들은 영재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가정에서 해주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어도, 수학도 가르칠 수 없는 부모들이 자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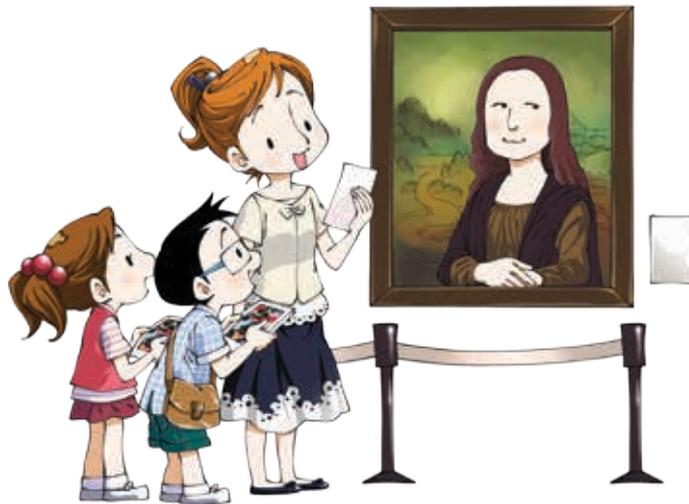
첫째, 아이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듣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들어주어야 아이는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그것이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일전에 영재발굴단에 화학영재로 나왔던 아이의 어머니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와 계속 눈을 맞추고 끝까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양육태도가 잠재력을 키우는 양육태도인 것입니다.

둘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 지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한 독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여 비판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셋째,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을 때, 그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할 때에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어서, 옆집의 친구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니까 따라서 다니는 것은 잠재력 발견이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먼저 피아노 음악에 관심을 갖는지부터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공부는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이는 학문적 호기심이 너무 많은 데 부모가 그것을 탐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들어주어야 아이는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심지어 못하게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모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시키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이가 관심이 있어 하면 그것을 따라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언어, 시, 이야기, 음악, 춤, 도예, 요리 등 다양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들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소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독창적 역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적 소양이 만나면 다양한 새로운 발명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산출물로서 나타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좌절을 견디어 내어 끝내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과 잘 교류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재능의 '방부제'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의 재능이 좋은 기회를 만나 꽃피울 때까

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문화센터나 방과 후 수업, 사교육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를 못해도 음악을 즐길 수 있고, 그림을 못 그려도 좋은 그림을 보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다섯째, 탐험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뜻밖의 기회에,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견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의 상황을 겪어 나가면서 사람의 뇌는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과정이 숨어 있던 잠재력의 발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 캠핑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자연을 함께 탐험하고 그 세상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은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게임을 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꼭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8월 15일 광복의 그 날

글. 강응천 역사저술가(문사철 대표)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였다. 그들이 합의한 '카이로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세 강대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 '공동성명'은 그해 12월 1일 테헤란에서 스탈린 소련 원수의 동의를 얻고 4대 강국의 '공동선언'으로 격상되어 전 세계 라디오의 전파를 탔다. 중국 총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환영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선언이 발표되자 실망해서 모임을 취소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총칭의 교민들은 선언에 대한 항의집회도 열었고, 임정 간행물에는 선언을 반박하는 글도 실었다.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패망

왜 그랬을까? 특별 조항에 들어 있는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말 때문이었다.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지만 즉시 해줄 수는 없다는 속뜻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이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불안감은 실제로 해방이 찾아왔을 때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은 다시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망설였다. 한국과 타이완만은 놓치지 않으려는 미련 때문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8월 6일 일본

한국이 완전 독립을 이루는 '적당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 찾아올 것인가?

해방 한 달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앞에는
아직 자주 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의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역사상 최초로 인류를 향한 핵 공격으로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리고 8월 9일 0시를 기해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의 일본군을 향해 진격을 개시하고, 미국은 나가사키에 두 번째 핵 공격을 감행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일 뜻을 밝히고 미국을 상대로 한 화평 공작에 나섰다. 공산 소련에 점령당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그나마 일본이 덜 죽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화평 공작이 진행되는 중에도 소련군은 빠른 속도로 남하해 한반도로 밀고 들어왔다.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소련의 서울 점령을 기정사실로 보고 유력한 좌익 정치인 여운형을 만났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8월 15일, 한반도는 진공 상태와도 같은 힘의 공백기로 빠져들었다. 아베의 부탁을 받아들인 여운형은 그날 바로 서울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문을 열었다. 건준은 곳곳에서 일본인을 대체하는 한국인의 자치 기구를 만들어 나가고,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비롯한 해외의 독립운동 세력은 귀국을 서둘렀다.

광복 한 달, 험난한 자주 독립의 길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화평 공작은 헛되지 않았다. 8월 22일 서울이 포함된 38선 이남을 미군이

점령한다는 방침이 아베 총독에게 전해졌다. 조선총독부나 한국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이미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아연 생기를 되찾고 다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치안 유지에 나섰다. 미군이 들어와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전에는 아직 자기들의 조선 지배가 끝나지 않았다는 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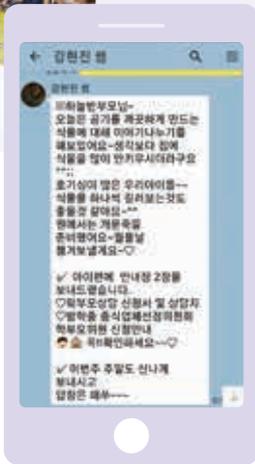
여운형은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의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협의에 나설 생각을 했다. 그래서 9월 6일 건준을 국가 체제로 전환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극동군사령부는 미군이 38선 남쪽에 들어오면 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여운형의 김을 빼 버렸다.

미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고 이튿날 서울에 들어가 조선총독부의 공식 항복을 받았다. 소련군은 미군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 이미 8월 21일 원산에 상륙하고 이튿날에는 38선 이북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이처럼 38선 양쪽에 미소 양군이 진주를 마치자 9월 11에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남과 북으로 귀국하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무장해제를 당한 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야 했다.

한국이 완전 독립을 이루는 '적당한 시기'는 도대체 언제 찾아올 것인가? 해방 한 달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앞에는 아직 자주 독립으로 가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

우리학교 우리반 소통창구 SNS 활용 노하우

학생, 학부모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고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들 생활의 일부가 된 SNS를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아이들 마음 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학교, 학급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SNS 활용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오늘 수박씨는 누가 젤 멀리 뺐었을까요?”
 “오늘은 개운죽을 집으로 보낼게요!”
 매일 수업내용을 문자와 사진으로 전송하고, 가정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병설 유치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돕는 게 우선이지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생활이 늘 궁금하잖아요. 편식하는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니 효과 만점! 단, 선생님의 의견에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댓글은 패스~ 덕분에 답장 부담 없이 학부모님들과 쿨~한 소통이 저의 노하우랍니다.

강현진 상무초 병설유치원 교사

학급밴드를 이용하여 조회나 종례 사항을 정리합니다. 준비물 같은 전달사항을 밴드로 연락해주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공식적인 밴드라서 기본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지킴도 꼭 노력해서 민주시민의 자질도 키우는데 활용합니다.

김대현 서부공업고 교사



학급 단톡방이 이렇게 화기애애 할 수 있을까요? 발곡고 2학년 5반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장효진 선생님은 단톡방에서 아이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해주세요. 그 주제로 학교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보름달이 뜬 날은 아름다운 달을 보라며 달 사진을 찍어주시는 선생님,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챙기라는 센스 있는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종례 시간에 초등학생처럼 가방 메고 종례해보자는 깜짝 제안에 찍은 깜찍한 학급 사진, 교내 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티셔츠에 환경보호 메시지를 그리고서는 함께 입고 찍은 뜻 깊은 학급 사진 등등. 저희 단톡방에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가영 발곡고 학생

그동안 밴드, 클래스팅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해왔어요. 알림장과 앨범 기능을 이용해 학교생활을 공개해 왔는데,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부터는 학교종이 앱을 사용하는데, 학교소식(가정통신문)과 학급소식을 함께 올릴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워요. 종이 가정통신문은 회신을 받아 통계를 내기까지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학교종이 앱을 사용하면서 회신도 빨라지고, 통계가 동시에 이뤄져 업무도 크게 줄었어요. 게다가 학부모와 소통도 동시에 가능하니 1석2조란 이런 게 아닐까요?

백선희 서정초 교사

학교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여 부서나 동아리별로 홍보하거나 분실물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마켓 페이지도 만들어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여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신주영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



저는 '밴드'를 사용하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먼저, 하루 동안 학급에서 있었던 수업 이야기들을 사진과 동영상에 첨부해 매일 게시합니다. 사진으로만 담기 어려운 것은 동영상을 촬영해 올립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댓글은 달지 못하게 설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터라 댓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어요. 알림장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궁금증도 댓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병이라지만 지금까지는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를 쌓게 하고, 아이들을 함께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고마운 방법이었습니다. SNS 매체 하나로 허문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벽!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확실히 허물어버리겠습니다.

박은영 금부초 교사

울곡초는 전교직원인 SNS로 소통을 합니다. 교직원들의 생일축하에서부터 야철 행사, 학교 내 선행 사례,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까지 SNS를 통해 알립니다. 특히 반짝 파티처럴 열리는 교직원 생일잔치는 작은 이벤트처럼 수시로 펼쳐지는데요. 덕분에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가며 무한 축하를 건네는 등 긍정 에너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현숙 울곡초 사서

전교학생회 및 학급 임원 조직 시 단톡방을 개설하여 각 임원들 중 SNS 담당을 두어 관리하고 있어요.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이나 바라는 점을 SNS에 올리고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있어요.

김민정 골프고 학생

학급밴드나 학교밴드도 효과적이지만, 우리학교는 학년단위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직접 올리기 때문에 일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요. 물론, 학교 홈페이지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년단위로 운영하면서 문서로 보내는 일이 줄어들어 효과적이네요.

문승욱 부산초 교사

'학년방'이나 '학습방'을 만들어 공부노하우 등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과 팁 등을 소개하며 자연스러운 활동과 대화를 유도해가는 거죠.

위삼석 장흥교육지원청 진로코디네이터

포천일고등학교 밴드는 학교에 현재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 소통의 나눔 공간입니다. 다른 학교 가더라도 탈퇴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정겨운 포천일고등학교 밴드입니다.

교내 행사 사진은 기본이고요 교내 선생님들의 상호희소식도 알리고,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하는 선생님들께는 결혼식장의 생생한 모습도 리포트합니다. 추가 동영상도 함께 하지요. 때로는 학교에서 잊어버린 분실물의 주인을 찾는 메시지도 올라와서 웃음 짓게 만듭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신 선생님들도 종종 그 학교의 소식을 올려주는 따뜻한 포천일고 나눔 상호 밴드입니다.

강병희 발곡고 교사



NEWS BRIFFING



교육부,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 '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개 팀 신설·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

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팀으로 집중하여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양대상 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 시·도교육청과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대응하도록 했다.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5만 명(기존 100만 명, 신규 35만 명) 학생들에게 '17학년도 2학기 기간 동안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금)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목)까지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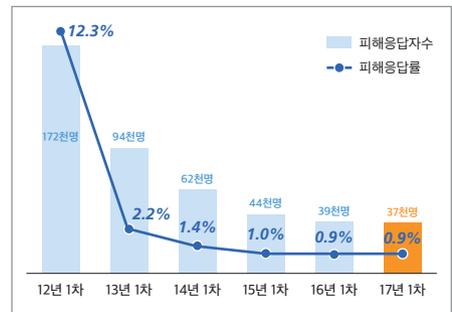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7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상 학생의 94.9%인 419만 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9%(3만 7천 명)로, 전년 동차 대비 동일(2천 명)한 것으로 나타나 '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응답률이 3.7%로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운동장'(9.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1%)에서 발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함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학교예술 교육활동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교육부와 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7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학교 예술교육 활동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다양한 재능을 표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10월 전국 공모전은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지역 공모 결과 추천된 우수사례와 학생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예술 교육활동 공모전」 주요 내용

(접수) 지역별 시도 교육청 접수 및 우수작 추천 : 7월~10월
전국단위 접수 : 10월 25일(수)~10월 30일(월)

(분야) ① 예술교육 우수학교, ② 예술교육 우수수업,
③ 학생예술 우수작품*

* 창작음악, 포스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카툰, 뮤지컬·연극 각본

(시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59개, 기관장상 42개,
총 상금 1,300여만 원 시상 예정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7월 10일 공고했다.



이미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은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2018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 특징은 수시모집에서 '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74.0% 선발하며,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감소에도 전년 대비 3.5%p 증가한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의 수시 모집인원은 86.4%로 지난해 85.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른기회전형을 비롯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도 늘어났다. 반면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728명 감소해 28개교에서 1만 2,961명을 선발한다.

한편, 수험생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 접속해 [마이페이지→나의지원정보]에서 수험생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356명의 현직교사와 상담전문위원이 풍부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 ▷학과정보 ▷전형정보 ▷학습진단 등 대입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상담(1600-1615)도 가능하다.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단속 추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의 심업체 8개소와 별도로 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하여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

이벤트
01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 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이벤트
02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충북 삼성중학교를 소개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교과 시험에서 OMR카드를 없애고 100% 서술·논술형 시험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채택하기는 더 힘들어졌네요. ㅎㅎ 유현지

유현지(경기 남양주시) 이현정(인천 남동구) 장삼동(부산 북구) 박리대(강원 평창군) 이훈석(경북 포항시) 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7년 8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종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지면 관계상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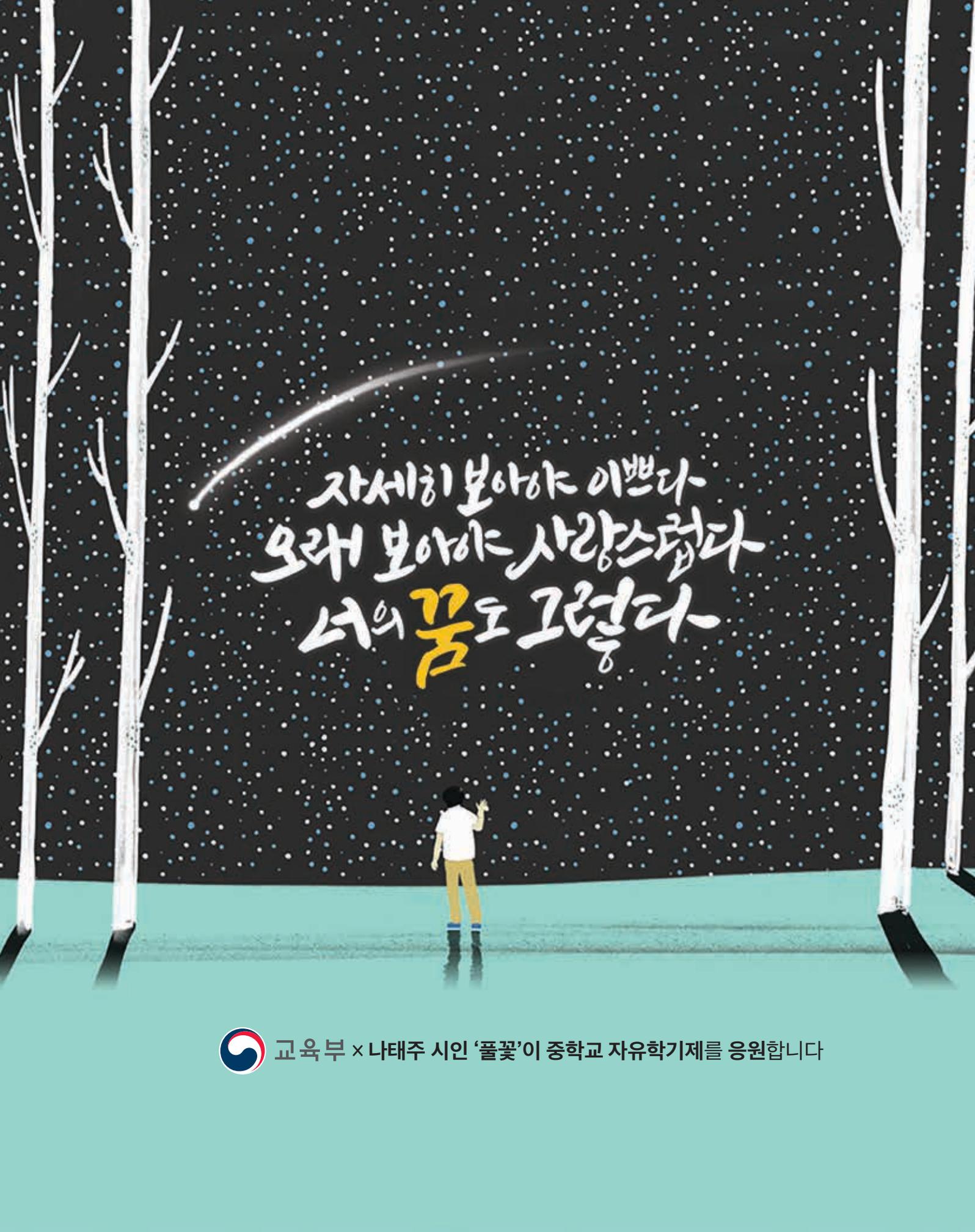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 2271-0992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 학교단위 신청하기
 - ↳ 교육모임 신청하기

A person in a white shirt and yellow pants stands on a teal ground, looking up at a dark night sky filled with stars. A bright shooting star streaks across the sky. White, bare trees are visible on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frame.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의 꿈도 그렇다



교육부 × 나태주 시인 '풀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응원합니다

공정의 나비효과 공익신고

당신의 작은 날개짓이 가져올 큰 변화

학교급식 관련 신고대상

- ▶ 불량 식재료 사용
- ▶ 식재료 원산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축산물 등급 등의 허위 표시
- ▶ 조리·급식 시설 및 식재료의 비위생 관리
- ▶ 납품 및 업체선정 관련 담합행위 등

신고 및 상담

- ▶ 신고
 - 홈페이지 1398.acrc.go.kr
 -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보호 보상

-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지급
-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